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MAY+JUNE



2025 vol.72

SPECIAL THEME Powerful Senior **LIFE &** 몰타 기사단이 건설한 유럽 최초 계획도시 Malta Valletta
SENIOR & 아라가야의 숨결이 깃든 고장, 함안 **WEALTH &** 최정예 핵심 PB 라인업의 전략적 시너지 TWO CHAIRS W 도곡

아시안뱅크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May and June

Bloom into Life

〈TWO CHAIRS〉5+6월호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위상이 변화한 시니어들의 라이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신조어와 시니어만을 위해 만든 서비스, 업그레이드된 제2의 삶을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도 소개합니다. 국내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와 색다른 여행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럭셔리 트레인 투어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만큼이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삶에서 예술을 즐기며 잠시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 주목받는 전시인 〈겸재 정선〉과 세계 초연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을 감상하러 문화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09 Special Theme

10 INTRO

당신이 잘 몰랐던 요즘 실버

12 FOCUS

이건 시니어만을 위한 특급 서비스야!

16 PLACE

The Higher Place

22 ICON

We are 'Grandfluencer'!



25 Life &

26 TRAVEL ▶

몰타 기사단이 건설한 유럽 최초
계획도시 몰타 발레타

34 EXHIBITION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의 붓 길을 따라서

40 ARCHITECT

도시를 잇는 곡선, 공간을 여는 건축
J. 마이어 H.

46 SPACE

The Nature of Home:
The New Luxury Living

50 SCENE ▶

여행이 예술이 되는 순간
Luxury Train in the World

56 WHAT'S HOT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계, 데코텐터티

60 CLASSIC STORY

오직 단 한 번의 경험, 세계 초연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



63 Senior &

64 LOCAL TOUR

아라가야의 숨결이 깃든 고장,
함안

70 READING

필사의 힘

72 SIGNATURE HOLE

라테나 골프 클럽

76 GOLF LESSON

백스윙이 작으면 비거리도 작다!

80 GOURMET

새로운 미식의 별이 뜨다!
2025년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84 RECIPE

누구나 완성하는 레스토랑의 맛
Fish, Fast, Fantastic!

88 HEALTH

이제, 명상이 처방된다



91 Wealth &

92 MEET

최정에 핵심 PB 라인업의 전략적 시너지
TWO CHAIRS W 도곡

98 INVESTMENT

마리라고 합의MAR-A-LAGO ACCORD는
실현될 수 있을까?

102 REAL ESTATE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106 TAX STORY

상장주식 대주주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12 READERS LETTER

▶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6월호 제10권 제3호(통권 제72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OVER STORY

아시아의 미국적인 열대우림과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벨몬드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내부



서원밸리CC에서 만나는 KPGA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

예측 불가한 승부는 스포츠의 매력을 배가한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접전을 펼치며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과정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올해 열린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바로 그런 짜릿한 순간들로 골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Writer: 지언 Photo: 박충렬, 우리금융그룹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CC에서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이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이전까지 여주 패럴CC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서울에서 보다 나은 접근성과 우수한 코스 관리로 한국의 10대 코스에 이름을 올린 서원밸리CC로 옮겨 대회를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우리은행 TWO CHAIRS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미국 PGA 임성재 프로를 비롯해 김홍택, 이정환, 이수민, 박준홍, 박상현, 조민규, 문동현 프로 등 실력이 쟁쟁한 선수 144명이 참가했다. 지난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임성재 프로는 3연패를 노렸지만, 시차와 코스 적응 실패에 샷 난조까지 겹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날씨였다. 강한 바람과 다소 딱딱한 그린은 참가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흘 내내 3.8m로 세팅된 그린 스피드는 내리막 라이에서 더욱 힘을 발휘했다. 스코어를 줄이기보다 지키는 플레이를 해야 했음에도 코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선수는 없었다.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캐나다 교포 이태훈 프로가 거머쥐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이태훈, 박준홍, 강태영 프로가 함께 연장전을 치른 것. 이들은 최종 라운드 5언더파 279타로 18번 홀을 다시 치르게 됐다. 연장전에서 혼자 티 샷을 페어웨이에 떨군 이태훈은 박준홍, 강태영



- 1_ 연장전으로 가기 전 마지막 라운드를 치르는 중인 박준홍, 김백준, 옥태훈 프로
- 2_ 갤러리 프라자에 마련된 굿윌스토어와 이벤트 부스들
- 3_ 현장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굿윌기부함
- 4_ 이번 대회에는 13번홀에 WON 모바일 존을 설치해 색다른 골프 관전을 즐기도록 했다.





마지막 승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태훈 프로

프로가 파 퍼트를 남긴 상황에서 4m 버디 퍼트를 넣으며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태훈과 함께 끝까지 접전 승부를 펼친 우리금융그룹 소속 박준홍은 2023년 KPGA 선수권대회 준우승에 이어 두 번째 2위이며, 2언더파 69타를 때린 강태영은 작년 골프존-도레이 오픈 공동 2위에 이어 또 한 번 준우승을 차지했다.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매장, 굿월스토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갤러리의 방문으로 경기장 밖에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대회 직관을 위해 방문한 갤러리를 위해 갤러리 플라자에는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 푸드 트럭을 비롯해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숭인 굿월스토어 Goodwill Store, 우리WON모바일, 우리투자증권 등의 부스에서는 현장에서 즉석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우리금융그룹 후원 선수들의 기부 물품 판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갤러리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대회 기간 중에만 만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은 우리금융 챔피언십 프로 숭Pro Shop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은행 PB 브랜드인 TWO CHAIRS의 고급스러운 굿즈들과 대표 아이콘인 위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했다. 갤러리 프라자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한 굿월스토어는 2023년 12월부터 밀알복지재단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매장의



1. 갤러리 프라자 인기 부스인 우리금융 챔피언십 프로 숭. 우리은행 PB브랜드 TWO CHAIRS와 위비프렌즈의 다양한 굿즈들을 만날 수 있었다.
2. 대회에 앞서 이루어진 우리금융 드림라운드
3. 우리금융 드림라운드는 비가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이정한 프로와 한 조를 이룬 학생이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
4. 아쉽게 공동 2위에 오른 박준홍 프로
5. 이태훈 프로가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원 재활용과 발달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 대구, 전주, 군산, 부산 등 전국에 37개 점포를 운영 중이고 10년 동안 100개 점포 오픈, 1,500명의 중증 발달장애인 고용이 목표다. 이번 대회 때 행사 부스는 물론 굿월기부함을 설치해 현장에서 물품을 바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물품도 판매했다. 황중곤 프로는 현장에서 골프채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며 대회를 찾은 많은 갤러리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골프 꿈나무와 KPGA 프로의 만남, 우리금융 드림라운드

우리금융그룹은 대회에 앞서 4월 22일, 지방 소재 골프 특성화 학교 지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우리금융 드림라운드’를 서원밸리CC에서 개최했다. 2025년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KPGA 프로 선수 36명과 골프 유망주인

초등학생 72명이 동반 라운드를 하며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프로 선수에게 경기 운영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매년 참가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프로들 역시 ‘골프 유망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꿈나무들은 물론 프로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기회’라며 아이들이 진심 어린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역시 “우리 아이들이 골프를 통해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회 안내

일시 2025년 4월 24일(목)~27일(일)
장소 서원밸리CC
주최 우리금융그룹
방송 SBS GOLF2
주관 한국프로골프투어

대회 상금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3억원



- ☑ 우리금융을 한 곳에 모아 **WON MORE**
- ☑ AI 기술로 **WON MORE**
- ☑ 나 중심 서비스로 **WON MORE**

더 새로워진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WON MORE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i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우리은행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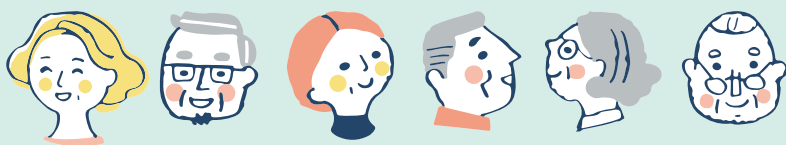
Powerful Senior

요즘 시니어는 더 이상 과거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한 경제력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자산으로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대로 떠올랐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트렌디한 시니어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시니어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잘 몰랐던 요즘 실버

인생 100세 시대, 요즘 시니어는
우리가 알던 그 시니어가 아니다.
넉넉한 경제력과 풍부한 사회 문화적 식견으로
단연 사회 주요 계층으로 떠올랐다. 다음과 같은
신조어를 보면 요즘 시니어 세대의 좌표가 읽힌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타이미지뱅크, 인스플래시
Reference. 대한상공회의소 'GG마켓 공략 보고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TBWA코리아 '시니어랩'



A세대 MZ? 실세는 A!

글로벌 광고 회사 TBWA코리아는 경제와 교육 수준이 높은 요즘 45~65세를 두고
'A'세대라 지칭했다. 왜냐하면 "자신감 높고 역동적이며, 도전적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에이스'적 면모를 보이
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다.

**생동감 있는, 존경받는, 성숙하고 수준 높은 취향을 지닌, 늙지 않는,
성취한, 자주적인, 자신의 방식으로 매력적인 세대**
Alive·Admired·Advanced·Ageless·Accomplished·
Autonomous·Attractive in my own way

A세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7개 키워드. 자신감과 적극성을 지니고 스스로의 삶을 사
는 당당함을 드러낸다.

Yold

Young도 아니고 Old도 아닌
우린 '올드'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은 뭐라고 부를까? Young(젊
은)과 Old(나이 든)의 합성어인 '올드Yold'는 A세대 이
후 65세부터 75세까지 노년층을 부르는 새로운 단어
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 세
계경제대전망'에서 처음 사용해 널리 알려졌다. 올드
족은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처럼 양로원에서 남은 생
을 보내거나, 손주를 돌보는 것에서 여생의 의미를 찾
는 전통적 노년층과 다르다. 이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
신과 신체를 갖추고, 시간과 돈의 여유를 바탕으로 자
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한다. 그 덕분에 이들은
여행·쇼핑·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떠올
랐다. 올드와 이상적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골딜록스
Godilocks가 더해진 '올디락스Yoldilocks'라는 새로운 시장
을 일컫는 단어도 생겨났다. '올드 세대가 주도하는 이
상적 경제 부활'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고령화 시장을
의미하던 실버 이코노미Silver Economy보다 훨씬 적극적
이고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만큼 경제 시장의 중
심축이 올드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andfluencer

디지털 시장 혼드는 황혼의 인플루언서

디지털 시장에서 변방에 있던 시니어 계층이 점차 중심으로 이동하
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이제 '그랜드플루언서'라 부른다. 할머니·할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인 그랜드페어런트Grandparent와 인스타그램
이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주변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한 요즘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십분
살려 자신의 경험과 감각, 지식을 공유하는 남다른 크리에이터로 자
리 잡았다. 네이버가 발간한 2022년 <블로그 리포트>를 보면 블로그
를 개설한 50~60대 세대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30~40대 증가
율(10%)을 앞지른 상황이다.



GG세대

A세대+올드=GG

A세대와 올드족 등으로 이뤄진 40대부터 80대까지의 인구를 통칭
해 무엇이라 부를까? 바로 그랜드 제너레이션Grand Generation의 약자인
'GG세대'다. GG세대는 1951~1970년에 출생한 55세부터 74세까
지를 폭넓게 아우르는 단어. 이들은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왕성하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회 주도 계
층으로 굳건히 자리한다. 이 덕분에 세대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의 '퍼레니얼Perennial' 현상을 이끄는 핵심 계층으로 꼽힌다. '다년
생식물'을 뜻하는 퍼레니얼은 이제 더 이상의 세대 구분은 의미가 없
을 정도로 문화가 섞이며, 자신이 속한 특정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
이지 않은 채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고 있다는 요즘의 사회 문화적 현
상을 말한다.

Agetech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

유엔 미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2020년)에서
97억 명(2050년)까지 늘어나고, 그중 65세 이상은 7억 명에서 15
억 명까지 증가한다.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함께 건강, 장수 등에 기
술로 대응하는 '에이지테크'가 강세를 이룰 예정이다. 연령Age과 기
술Technology이 결합한 이 새로운 단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
털 혁신을 총칭한다. 디지털 시장 발전의 한 축에 시니어 세대가 있다
는 뜻.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 에이지테크 시장은 2025년 2조
7,000억 달러(한화약3,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3배 UP

뭐니 뭐니 해도 'Money'

요즘 시니어 계층의 자신감은 바로 탄탄한 경제력에서 비롯된다.
2021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순자
산 규모는 30대의 3배에 달했다. 이런 경제력 집중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통계청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
산은 60세 이상은 6.2%, 40대에서 3.7%, 50대에서는 1.6% 증가
했다. 39세 이하는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이건 시니어만을 위한



특급 서비스야!

시니어라면 꼭 저장하고 기억해두자.
시니어를 위한 여행, 모임, 건강관리는 물론
취업 관련 서비스까지 다 모았다. 편리하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줄 각종 분야별
서비스 모음집!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Reference.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건강&헬스케어 NO 시니어? 웰컴 시니어!

다양한 연령대 중 건강관리에 가장 관심이 높은 연령대는 단연 50~70대인 시니어 세대다. 시장조사 기관 오픈서베이의 '시니어 트렌드 리포트 2024'의 조사 결과다. 이들은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을 따지며,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시니어 세대의 건강관리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추세다.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은 요즘 시니어 계층은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더 많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 다이어트 등을 통한 외모 관리 등 '건강' 안에 더 많은 카테고리가 생겼다.

서울 노년종합복지관 스마트 피트니스센터

중년 이상에게 필수인 '근력 운동'을 인공지능^A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방문하면 우선 물리치료사와 상담을 통해 체성분, 노쇠 지수 등을 검사해 운동 목표를 정하고 적절한 운동법을 지도받는다. 이후 AI 기반의 근력 기구를 통해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운동할 수 있다. AI 기반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회원 카드를 찍어 저장된 나의 데이터를 읽고 기구의 무게부터 목표치 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과거 센터 안에 안마 의자 등이 있던 일반 건강관리실이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수요층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최첨단으로 탈바꿈했다.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 02-541-0226

제일리핏케어 운동센터

척추 전문인 제일정형외과병원에서 만든 시니어 전문 재활 운동 센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척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일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엑스보디 검사를 통해 보행 패턴, 근육 활성도, 신체 불균형 등을 파악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설계한 맞춤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통증 부위뿐 아니라 전신 활력에 초점을 맞춘 메디컬 스트레칭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6 🌐 cheilrefitcare.com

☎ 02-542-2488



HEALTHCARE

고:요 웰니스

나이 들어 헬스장이나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기도 꺼려지고, 내게 맞는 운동을 찾기도 어렵다. 가능한 건 주민센터 등에서 하는 운동인데, 아직 그런 곳에 가기는 겁난다. 이런 좁은 선택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시니어 세대이기도 하다. 고:요 웰니스는 이런 불편함을 느껴온 5070 세대를 위한 멤버십 웰에이징 센터. 몸과 마음의 활력을 챙기고 '잘' 늙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웰에이징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정신과 마음의 균형을 챙기는 홀리스틱 케어 Holistic Care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한남점을 시작으로 현재 반포, 은평점까지 문을 열었다. 올 1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서정희가 결혼을 앞둔 딸과 함께 이곳에서 신부 관리를 받으며 유명해졌다. 방송에선 개인별 체지방, 스트레스, 혈관 건강 지수 등을 측정해 각자에게 맞는 항산화 프로그램과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은평점의 특징은 요즘 시니어 계층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해 면역과 다이어트, 해독에 중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맞춤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물론, 스트레스와 치매 예방 등에도 효과적인 수면 테라피까지 제공한다.

🌐 goyowellness.com ☎ 02-1599-3534

여행 컨시어지부터 자유 여행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4 액티브 시니어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거의 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96.9%가 여행이나 취미 관련 소비에 적극적이라고 답했다. 또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이 꼽은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가 관광이었다. 이렇게 경제력과 시간 여유를 갖춘 시니어 계층은 여행업계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전문 여행 상품 및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너드

관광버스를 타고 휘리릭 다녀오는 시니어 전문 국내 여행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아너드다.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일정 전반의 불편을 해소해줄 여행 비서가 동행하는 것이 특징. 지리산 철쭉 보기, 청산도 유채꽃밭 관람 등 전통적 시니어 여행 레퍼토리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반 고흐 전시를 관람하고 정통 프랑스 코스 요리를 먹거나, 세계적 건축가 승효상, 알바루 시자^{Álvaro Siza} 등이 협업해 완성한 사유원을 돌아보며 건축 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등 문화 예술 소양을 함양해줄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www.honored.kr



TRAVEL

에프오씨씨(FOCC)

단순한 여행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커뮤니티 기반 맞춤형 여행 플랫폼.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점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시니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물론, 그중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선발해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엔 안동시와 함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프라잇한 고택 캠핑' 등 촌캉스와 요즘 트렌드인 캠핑을 결합한 독특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여행 상품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판매한다.

www.focc.kr

노랑풍선 '툭픽'

여행사 노랑풍선의 프리미엄 여행 상품 브랜드인 톱픽은 시니어를 위한 상품만을 팔지는 않으나, 노랑풍선은 올해 시니어 여행객의 폭발적 증가세를 감안해 시니어의 수요를 대폭 반영한 고급 여행 상품을 톱픽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캐나다 나이아가라폭포 뷰 호텔이나 전통 프리미엄 일본 료칸에 묵거나,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스카이 뷰 레스토랑에서 파리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코스 요리를 먹는 식이다.

pkg.ybtour.co.kr

취미&문화생활 경로당 대신 이제 앱으로 놀자!

예전엔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주로 경로당에서 보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와 함께 어지간한 나이로는 경로당에 발붙이기도 어렵고, 아직 자신은 한창인데 한순간 경로당 문을 두드리는 것도 겹언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매한 나이대인 중장년층을 위해 다양한 모임과 취미 수업 등 서비스가 생기는 이유다. 시니어의 동호회 활동도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8%의 시니어만이 친목 단체 활동에 참여했는데, 2023년엔 6.6%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도 속속 늘어나는 추세다.



오뉴

시니어에게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 곳 다른 여가 플랫폼. 시니어 대상 수업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천편일률적 수업 대신 디제잉, 사케 시음, 취향과 안목을 키워줄 브랜드 트립, 쇼호스트처럼 말하기, 젊은 작가 독서 모임 등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고 문화 정수를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오프라인 수업을 갖춘 것이 장점.

www.onew.life



오이

4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취미 모임 플랫폼. 등산·골프·공예·여행 등 4060 세대로 구성된 지역 기반 취미 모임이나 밴드, 동호회, 소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임 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모임을 주재하는 모임장의 정보 스케줄 잡기, 회원 관리 등도 도와주니 내 마음에 드는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기도 손쉽다. 모임을 개설하면 모임 플래너가 연락해 모임 소개 글부터 대표 이미지, 규칙 제작 등을 도와준다. 당근마켓의 매너 온도처럼 이상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돕는 사용자의 매너 정도를 체크하는 '매너 오이' 제도도 있다.

oe-app.com

CULTURAL LIFE



시럽

'시니어 놀이터'를 표방하는 스타트업 시럽이 운영하는 5070 세대를 위한 이성 친구 매칭 서비스 앱(시럽). 5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점차 친구 찾기가 어려워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본격 데이트 앱이다. 출시 2년 만에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기. 내가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를 찾아주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도 추천한다. 마치 친구인 양 시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79전화' 서비스도 있다.

www.sinor.co.kr

재취업 우린 아직 현역이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채용 규모는 줄고 있지만, 경력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을 찾는 일자리는 오히려 느는 추세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일컫는 1964~1974년생들의 은퇴가 목전에 다가오며 이들 관련 일자리 시장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64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 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지난 9월에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어테일워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채용 플랫폼. 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 자연스레 주요 소비층은 중장년, 시니어다.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에서 일단 내려와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검증된 능력을 토대로 적절한 취업 자리를 연결해준다.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 시니어의 숙련된 기술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 지식과 해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적재적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www.attalework.com



거대한 관광단지 안에 조성될 부산 VL라우어-라티브

The Higher Place

호텔 체인까지 뛰어들 정도로
시니어 전용 주택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되어진
요즘 실버타운 리스트 업.

Writer: 유나리 Photo: 한경DB, 각 사 홈페이지



노블파인스 안의 쾌적한 찜질 시설

1

떠오르는 최고급 시니어 주택 마곡 VL르웨스트

가속화하는 고령화로 시니어 대상 주택은 이미 건축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호텔 업계 또한 시니어 주택에 관심을 쏟는 곳 중 하나. 대표적인 곳은 롯데호텔. 이미 2022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을 선보이고 VL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를 표방해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20평부터 36평, 37평, 44평, 47평, 69평까지 6개 평형대에 총 810가구가 살게 될 이곳의 보증금은 면적별로 7억~20억원. 월 사용료도 200만~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런 높은 가격에도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라는 매력적 입지에 5성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업무 지원부터 생활의 불편함을 처리해줄 컨시어지 서비스, 청소나 정리 수납 등을 도와줄 하우스키핑 서비스, 건강 상태에 맞춰 셰프가 구성해주는 맞춤 식단 등 5성급 호텔 서비스를 집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하며, 부부일 경우 한 명만 60대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2년.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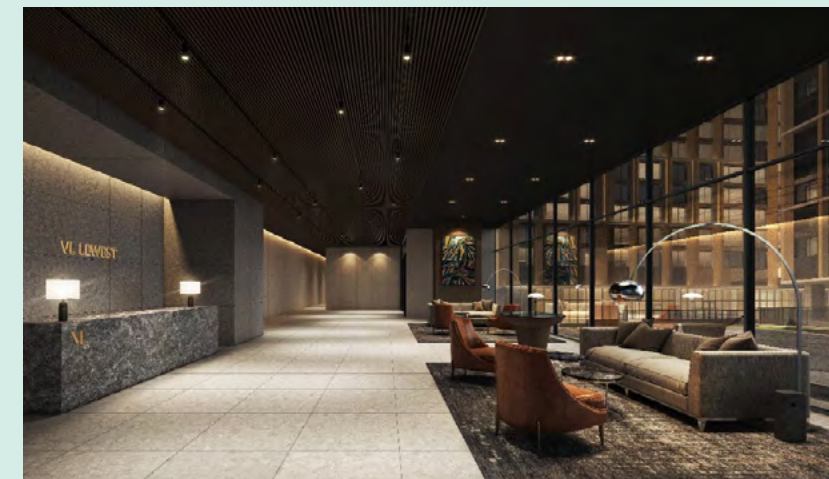
🌐 www.lottesrc.com/vl



독서나 담소 등을 나눌 수 있는 취미 공간도 충분하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으로 지어진 마곡 VL르웨스트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등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자유롭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민 라운지 시설

2

평창동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노후 평창카운티

고급 주택이 즐비한 운치 있는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노후를 편하게, 그것도 비교적 합리적 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 곳.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7층짜리 아담한 주택에 총 165세대가 산다. 언뜻 외관만 봐서는 시니어 전용 주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평창카운티는 마치 동네의 타운하우스처럼 이질감 없이 주변과 어우러진다. 시니어 타운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이곳은 보증금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 시내 주요 시니어 주택의 보증금이 4억~9억원인 데 비해 평창카운티는 3,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의무 거주 기간도 없다. 서울 시내 고급 주택지에서 여유롭게 머무르는 것이 장점인 만큼 호텔에서 받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입주민의 집사 역할도 해준다.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비롯해 고급 스파, 마사지실, 영화관,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스스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입주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 가능한 것도 특징.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7

🏠 pyeongchang-county.com



동네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타운하우스 느낌의 외관

3

인천 최초의 호화 시니어 주택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초밀착 실버타운 탐방기’ 콘셉트의 <은퇴설계자들>이라는 종합 편성 채널에 소개된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신도시인 청라에 위치해 쾌적하고 풍성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 인천에 들어선 첫 프리미엄 시니어 주택이며, 서울 자곡동에 있는 더시그넘하우스의 2호점이다. 규모는 자곡동 1호점보다 아담하지만 속은 알차다. 건물 복도부터 가구 내 화장실까지 전체 바닥을 모두 온돌식 난방 시스템으로 깔았고, 2명의 간호사가 상주해 건강을 관리해주며, 인근 대형 병원과 연계한 응급 대기 시스템도 갖췄다. 영양사도 상주한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청라국제도시의 심곡천 옆. 하천 공원이 바로 앞이고 교회·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지나치게 호젓하지도, 지나치게 정신없지도 않다. 정원(139세대) 대부분인 138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영화관이 특징. 차로 10분 거리에 골프장이 있어 골프 마니아라면 제격이다. 전체 139실 중 가장 많은 개수인 57실이 34.5m²로 보증금은 3억원대, 더 큰 평수는 보증금이 4억원대다. 입주 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입주 가능하다.

📍 인천시 서구 청라동 137-4

🏠 cheongna.signumhaus.com



시니어 세대의 시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은은한 조명과 색의 내부 디자인



2면 개방형 테라스가 있어 거실과 안방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4

여행 온 듯 대규모 관광단지에서 머무는 부산 VL라우어 & VL라티브

VL르웨스트로 초호화 시니어 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롯데호텔이 부산 기장군에 조성 중인 시니어 주택. 롯데월드와 롯데몰 등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관광단지 안에는 호텔, 아쿠아월드, 복합 쇼핑몰,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선 오시리아역도 지나간다. 인근엔 힐튼, 아난티코브, 반얀트리 등 호화 호텔 체인이 들어선 신흥 럭셔리 관광 지역이다. 이곳에 내년 오픈할 예정인 VL오시리아는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오시리아 547세대, 썬시티가 관리하는 라티브 408실, 한방병원 등이 한 건물에 함께 위치한다. VL라우어는 노인복지주택,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시니어 주택이고, VL라티브는 양로 시설로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진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요양보호사가 있다. 그래서 VL라우어

는 20평대부터 45평대까지 일반 세대와 53평, 56평, 77평형 펜트하우스로 나뉜다. VL라티브는 10~20평형대로 1인 거주자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VL라우어와 VL라티브 모두 하우스키핑 등 호텔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호텔 레스토랑급 식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VL라우어의 보증금은 평형별로 2억~8억원, VL라티브는 2억~4억원 선이다.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동부산관광1로 60

🏠 lativ.kr



주거 시설 외에 의료 시설인 한방병원, 르메디센터와 상업 시설이 있는 라우어 애비뉴 등이 있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백운호수, 바라산, 백운산 등 산과 호수를 끼고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5

세대 공존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세대 공존형 시니어 주거 시설. 13개 동에 1,378세대가 거주할 이 대규모 단지는 일반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시니어 전용 주택과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오피스텔이 함께 있어 부모와 지척에서 거주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딱 좋다. 대규모 아파트인 만큼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강점. 실내의 수영장부터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사우나, 보디케어 센터, 메디컬 센터, 도서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 등을 갖춘다. 시니어 주택답게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한 건강 케어부터 맞춤형 식사 서비스, 청소·세탁 같은 가사 등 기본 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또 재무나 법률 상담, 여행 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도 갖추 예정. 단차 없는 바닥 마감, 비상 버튼, 승강기식 대피 시설, 안전 유도

등, 안전 바,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시니어를 위한 특화 설계도 충실히 적용되어 있다. 만 60세 이상 독립된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61m²·84m²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타입에 따라 보증금은 6억~9억원대. 생활비는 200만~300만원대다. 의무 거주 기간은 2년. 올 11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918-1

🌐 baekwoonlakeprugio.com



전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만큼 일반 아파트보다 강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강점이다.

6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문가가 모인 케어링 스테이 수원화성레이크점

현재 시니어 거주 시설은 최고급 레지던스와 다인실의 요양원으로 양분되어 있다.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고령화 시대인 지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 케어링 스테이는 이런 필요성에 착안해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케어링이 만든 도심형 시니어 주택. 비교적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돌봄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밀착 케어해준다. 케어링은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약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최근엔 카카오톡케어와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를 활용해 시니어 주택 입주민에게 건강관리를 해주며 병원 연계 등의 의료 체계를 구축했고, 한샘과는 시니어 주택을 위한 가구 개발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풀무원푸드머스와 협약해 케어링 스테이 거주자를 위한 식자재 공급, 영양 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언, 식단 관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어링 스테이는 만 60세 이상부터 입주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한 명만 기준에 충족하면 된다. 보증금은 저렴한 편이나 일상적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해 월 생활비가 높은 편이다.

📍 경기도 화성시 효심2길 36

🌐 www.caringstay.co.kr



수원 용주사 건너편에 있어 아늑한 주변 경관도 자랑거리다.

7

호반에 살어리랏다 춘천 노블파인스

시끌벅적한 도심 대신 호젓함을 누리며 자연 가까이에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좋은 대안. 의암호·화목원 등 아름다운 호반에 위치하고, 대학 병원도 지척이다. 춘천역이 있어 도심 접근성 또한 좋다. 간호사가 상주해 건강관리도 해주고, 매주 한 번씩 청소와 세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춘천에 생긴 최초의 호화 시니어 레지던스, 바로 노블파인스다. 카페부터 운동 공간, 찜질방, 안마실 등도 갖추었다. 14.3평형 단일로 구성되었고, 총 152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보증금은 3억원대, 의무 거주 기간은 3년이다. 올 하반기 임대를 시작할 예정이다. ☪

📍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581번지

🌐 www.noblepines.co.kr

곧 생겨요, 실버스테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까지 있는 대표적 고령 국가다. 그런데 여전히 시니어의 거주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나라에서 조성하는 고령층 특화 주거 공간이 생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만 60세 이상 대상의 주거, 식사,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주 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라는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이제 나라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나 주택 소유자라도 거주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의 95%가량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첫 사업 예정지는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이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총 300세대 이상 모집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경기도 의왕·파주 등지에 실버스테이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라고.

We are ‘Grandfluencer’!

인생 좀 ‘살아본’ 시니어가 전하는 이야기가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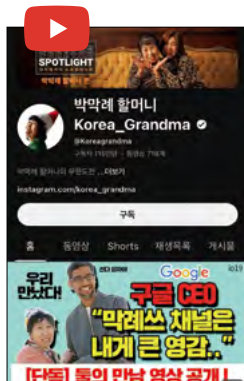
남다른 해안과 인생 경험, 유머 등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랜플루언서를 만나보자.

Writer: 유나리 Photo: 각 계정

국가대표 시니어 인플루언서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 115만 명을 자랑하는 대표적 시니어 인플루언서. 국내에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와 정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주인공이자, 시니어의 삶이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손녀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인기를 끌면서 2019년에는 유튜브의 CEO가, 2020년에는 구글의 CEO가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박막례가 주로 올리는 콘텐츠는 일상 내용이다. 비빔국수 레시피, 무밥 레시피, 백내장 수술 브이로그 등 당신의 나이대에서 가능한 일상을 올린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산전수전 겪으며 산 박막례 할머니만의 가치관과 유머 감각이 담겨 있기 때문. 최근에는 본인의 피부 관리 비법이라고 공개한 바 있는 쌀뜨물을 활용한 뷰티 브랜드도 론칭하며 전방위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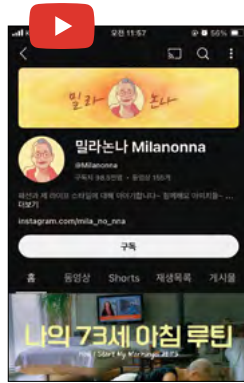
▶ @koreagrandma



시니어 워너비 밀라논나

구독자 98만5,000명에 달하는 시니어 유튜버 밀라논나는 그랜플루언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 밀라논나의 강점은 세월을 뛰어넘은 패션 스타일, 인테리어 노하우 등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링. 과거 패션 디자이너이자 명품 바이어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로로피아나, 르베이지, 자라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의 리뷰부터 옷을 고르고 관리하는 법 등 다양한 꿀팁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자식과 대화하는 법’, ‘젊을 때 알면 좋은 것’ 등을 올리며 시니어 멘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플랭크와 영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밀라논나의 라이프스타일은 젊은 세대에게는 ‘나이 들어도 젊고 싶은 모습’으로 ‘갓생’을 산다는 찬사를, 동년배에게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대리 만족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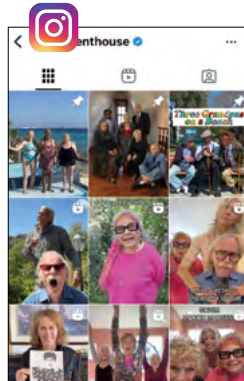
▶ @Milanonna



유패·상쾌·통쾌한 은퇴자 일상 리타이어먼트 하우스

6명의 은퇴자가 로스앤젤레스 대주택에서 거주하며 벌어지는 일상을 담은 계정.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계정은 아니고, 2명의 젊은 창업자가 젊은 층으로 과포화 상태인 틱톡 시장에서 차별화한 콘텐츠를 고민한 결과 만들었다. 은퇴자들의 자유 발랄하고 즐거운 모습을 담은 틱톡으로, 개설 6개월 만에 구독자 300만 명을 넘기며 초대박을 쳤다.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등을 운영 중이다. 현재 인스타그램은 211만 명, 틱톡은 6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시니어들이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올리는 유머 영상이 주를 이뤄 어느 세대든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 강점. 인기에 힘입어 프로그레스, KFC, 월마트 등 대형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그랜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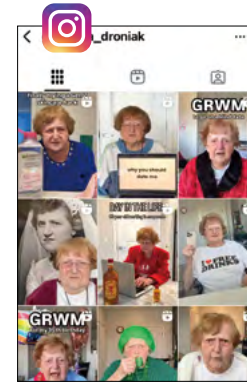
▶ @retirementhouse



95세 최고령 힙스터 그랜마 드로니악

인스타그램 355만, 틱톡 14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초거물급 시니어 인플루언서. 올해 95세인 그랜마 드로니악은 거침없는 저세상급 유머와 시니컬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95세에 블라인드 데이트를 위해 단장하거나, 내 친구들은 매일 죽는다며 장례식에 참석하는 콘텐츠조차 ‘퓨너럴(Funeral)’이 아닌 즐거운 파티인 ‘펀어널(Fun-eral)’이라고 자조하는 콘텐츠 등은 젊은 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최고조의 유머이자 자연스러운 시니컬함이 넘쳐나기 때문. 그 덕분에 파이어볼이라는 위스키 브랜드 앰배서터도 함께 하고 있다. 콘텐츠 중간중간 위스키를 샷해 마시는 그랜마 드로니악의 유쾌함은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이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박막례 할머니처럼 손주와 함께 계정을 운영하며, 모든 콘텐츠를 다른 크리에이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작·편집해 올리는 것 또한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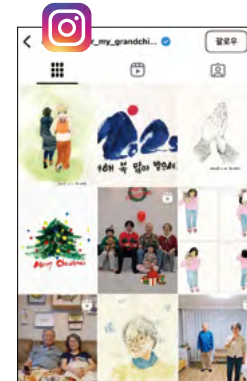
▶ @grandma_droniak



가족을 위해 떠난 그림 편지 작가 이찬재·안경자 부부

1942년 동갑내기 부부인 이찬재, 안경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그림과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해 유명해졌다. 떨어져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권유에서 시작한 이들은 이전까지는 취미로도 그림을 그린 적 없던 생초보였다고. 그러나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사진이 잘 나오건 나오지 않건 상관없이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리라는 아들의 조언대로 작품을 올렸고, 덕분에 지금은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아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하고 유머 가득한 인플루언서와는 다르지만 따뜻함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도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방식임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 @drawings_for_my_grandchildren



시니어 자동차 전문 유튜버 스코티 킬머

56년간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동차 관리법 등을 다룬 콘텐츠를 올리며 자동차 수리 전문 유튜버가 됐다. 구독자 650만 명에 달하는 그의 유튜브 계정은 ‘자동변속기 자동차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헤드라이트를 영구적으로 복구하는 진짜 방법’, ‘오일 교환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정비공으로서 노하우가 제대로 담긴 꿀팁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정작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원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오랜 경험과 지식이 쌓인 덕분에 머릿속으로 대본을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알아서 한다. 삶의 또 다른 활력과 수입원을 찾은 비결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며 쌓인 내공의 시간 덕분 아닐까.

▶ @scottykilmer



스타일리시한 시니어 창완지·쭈쭈에 부부

대만의 80대 시니어 커플이 운영하는 패션 계정. 부부는 1959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해왔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로 골치를 앓았다고. 그 옷을 입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겠느냐는 손주의 제안에 인스타그램에 멋진 스타일링 착장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동모 앞 시니어 힘을 연상케 하는 자유분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화보 사진 덕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순식간에 72만 명까지 늘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스타일리시한 트렌디한 시니어 모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쌓인 시간으로 재미있는 옷 입기를 보여주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2023년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는 할아버지 혼자 계정을 지키며 할머니와의 시간을 추억하고 있다. 🌧

▶ @wantshowasyoung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첸나이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팔라렐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사무소

L I F 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타 기사단이 건설한 유럽 최초 계획도시

Malta Valletta

몰타 발레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공화국.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1566년 몰타 기사단이 세운 유럽 최초의 계획도시로, 중세 도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인 도시 발레타로 안내한다.

Writer: 두경아 Photo: Vistit Malta

지중해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연경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몰타. 이곳의 상업 중심지이자 수도인 발레타는 이국적 아름다움으로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다. 이곳은 몰타 기사단이 건설한 유럽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중세 시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6세기, 성 요한 기사단은 이곳에 거점을 두고 북아프리카의 항만과 항로를 기습하는 전략적 활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발레타는 오스만제국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기사단장 장 파리스드 라 발레트는 앞장서 싸우며 공방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는 요새 복구와 증축하는 작업을 끝낸 뒤 생을 마쳤다. 이후 기사단의 요새가 도시로 발달했고, 도시 이름은 기사단장의 이름을 따 발레타가 됐다.

한때 몰타는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군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어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영국령을 거쳐 1964년 몰타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 발레타는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발레타에는 여전히 몰타 기사단과 관련한 건축물, 바로크건축, 매너리즘 건축, 근대건축,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자랑한다. 성 요한 대성당, 몰타 기사단장 궁정 등을 비롯해 거리 곳곳 알록달록한 발코니나 로어 바카라 가든 등 볼거리가 가득하고, 기사단 요새의 흔적으로 온통 성벽에 둘러싸인 모습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아름다움 덕분에 발레타는 시 전체가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8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됐다.



몰타 발레타의 그림 같은 풍경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타 기사단의 유산

발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단연 성 요한 대성당 St. John's Co-Cathedral이다. 1577년 몰타 기사단이 수호성인 성 요한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바로크 건축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꼽힌다. 외관은 전형적 매너리즘 양식으로 건축되어, 마치 엄격한 요새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면 황금빛으로 가득한 장식들에 깜짝 놀라고 만다. 성당 내부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 화가이자 기사인 마티아 프레티를 포함한 예술가들이 바로크양식으로 새롭게 장식했다. 프레티는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벽을 디자인했고, 아치형 천장과 측면 재단에 세례자 요한의 삶을 묘사한 벽화를 남겼다. 언뜻 보면 조각상처럼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시 현상을 이용한 평면 그림이다. 이곳은 기사단의 무덤이기도 하다. 성당 바닥에는 무려 400여 개 대리석 판이 깔려 있는데, 각각의 판에는 각 기사의 문장을 정교하게 새기고 라틴어로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해놓았다. 성당이 더욱 유명해진 건 바로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가 남긴 작품 덕분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추방을 피해 몰타로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 '성 요한의 참수' The Beheading of Saint John the Baptist' 라는 명작을 남겼다. 특히 이 그림은 종교화에 익명을 요구하던 당시 관습을 깨고,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세례 요한의 핏자국에 남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기사단 유적인 기사단장의 궁전 Grand Masters Palace은 과거 기사단장이 기사단을 통솔하던 본부였으며, 현재는 정부 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궁전 내부에는 기사단장이 사비를 들여 만든 아프리카와 인도의 풍물을 보여주는 테피스트리와 몰타 공방전(대포위전)의 명장면을 담은 그림 등이 남아 있다. 복도에는 중세 갑옷들이 줄지어 전시돼 있다. 궁전 옆에 위치한 무기고 The Palace Armory에는 기사들이 실제로 착용한 갑옷, 검, 대포, 마차 등 각종 유적과 함께 오스만제국의 무기까지 전시돼 있다.

1. 황금빛으로 가득한 성 요한 대성당 내부
2. 과거 기사단장이 기사단을 통솔한 본부인 기사단장의 궁전
3. 바로크 대표 화가이자 기사인 마티아 프레티는 성 요한 대성당 내부에 세례자 요한의 삶을 묘사한 벽화를 남겼다.
4. 기사단장의 궁전 복도에는 중세 갑옷들이 전시돼 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발레타 대표 관광지

트라이턴 분수 Triton's Fountain는 발레타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사진을 찍는 대표적 랜드마크다. 이 조형물은 그리스신화속 바다의 신 '트라이톤^{트리톤}'을 형상화한 것으로, 모두 도시 입구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다. 이들의 역동적 자세는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물줄기가 분사되는 방식 또한 조각 전체에 움직임의 생동감을 더하도록 설계되었다. 분수 옆에 위치한 발레타 시티 게이트는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450여 년 역사상 다섯 번째로 건설된 문이다. 최초의 문은 1566년에 건설되었으며, 현재의 문은 런던의 더 샤드^{The Shard}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한 것이다. 2014년 완공된 이 문은 기존의 전통적 빅토리아 양식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몰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국립고고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chaeology}으로 가자. 이 박물관은 16세기 몰타 기사단의 프로방스 지방 출신 기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원전 5200년부터 2500년까지의 몰타 유적을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다. 특히 타르시엔 신전^{Tarxien Temples}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단검과 정교한 몰타 비너스상, 잠자는 여인상^{Sleeping Lady} 등 몰타를 대표하는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마노엘 극장^{The Manoel Theatre}은 1731년에 지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극장으로, 오페라 전문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4층 높이의 고풍스러운 객석은 그 자체로도 볼거리다. 현재 극장에서는 오페라뿐 아니라 연극도 열리고 있으며,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도 있어 공연이 없을 때도 둘러볼 수 있다. 카사 로카 피콜라^{Casa Rocca Piccola}는 16세기에 지은 몰타 귀족의 저택으로, 50여 개 방과 3개 지하 방공호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와 소장품을 통해 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1,3 1731년에 지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극장 마노엘 극장. 오페라 전문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4층 높이의 고풍스러운 객석은 그 자체로도 볼거리다.

2,5 16세기에 지은 몰타 귀족의 저택 카사 로카 피콜라.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와 소장품을 통해 귀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4 몰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국립고고학박물관. 기원전 5200년부터 2500년까지의 몰타 유적을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다.





1



2

1. 그랜드 하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어퍼 바라카 가든. 정원 아래 위치한 경례 포대에서는 매일 정오 12시와 오후 4시에 의식용 대포가 발사된다.
2. 어퍼 바라카 가든에는 곳곳에 벤치가 있어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
3. 카스티야 성벽 위에 조성된 로어 바라카 가든. 몰타의 초대 영국 총독인 알렉산더 볼 경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그리스 신전 형태의 기념물이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지중해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명소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 역시 발레타의 자랑이다. 어퍼 바라카 가든 Upper Barrakka Gardens은 지중해 최고의 항구 그랜드 하버 Grand Harbour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택을 갖춘 공공 정원이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있으며, 곳곳에 벤치가 마련돼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정원에서는 비토리오사 Vittoriosa의 그랜드 하버 마리아까지 탁 트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정원 아래 위치한 경례 포대 Saluting Battery에서는 매일 정오 12시와 오후 4시에 의식용 대포가 발사되는데, 관광객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볼거리다. 이 포대는 본래 16세기 오스만제국의 침입에 대비해 설치된 방어 시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을 기리는 상징적 행사로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어퍼 바라카 가든에는 그랜드 하버와 정원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로어 바라카 가든 Lower Barrakka Gardens은 그랜드 하버를 따라 이어진 카스티야 성벽 위에 조성된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신교전주의 양식의 그리스 신전 형태의 기념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몰타의 초대 영국 총독인 알렉산더 볼 경 Sir Alexander Ball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성벽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그랜드 하버 입구는 물론 칼카라 Kalkara와 비토리오사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지중해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몰타 발레타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을 비롯한 군사 유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다. 이 지역은 오랜 역사 동안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아랍 세력 그리고 성 요한 기사단의 지배를 거쳤으며, 총면적 55헥타르에 320여 개 기념물이 남아 있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역사 지구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발레타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 통일된 도시계획으로 조성되었으며, 르네상스 후반 이상주의의 대표적 산물로 평가받는다. 지정학적으로 침입이 잦았던 몰타는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으며, 도시 전체가 보루로 둘러싸인 요새 형태를 띠고 있다. 1566년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과 군대가 이곳에 정착한 뒤 약 250년간 도시를 지배했고, 발레타는 그들의 군사적·정신적 유산을 고스란히 품은 공간으로 남아 있다.

몰타 발레타까지 어떻게 갈까?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몰타 국제공항까지의 직항 항공편은 없다. 대부분 로마,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 유럽 도시를 경유해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몰타 공항에서는 ‘에어포트 다이렉트 4 Airport Direct 4’를 이용하면 20분 만에 발레타 시내에 도착할 수 있다. 만일 여행 기간이 넉넉하다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함께 돌아보길 권한다. 몰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가까워 페리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칠리아 포차로 Pozzallo 항구에서 고속선을 타면 1시간 45분이면 발레타에 도착한다.





정선, '금강전도', 종이에 수묵 담채, 130.8×94.5cm, 18세기 중엽, 개인 소장, 국보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의 붓 길을 따라서

조선 회화의 거장이자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 인왕산부터 금강산까지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이 그의 붓 끝에 남아 300년을 지나왔다.

그리고 올봄, 그의 작품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특별전

〈겸재 정선〉으로. 정선이 눈으로 담고, 붓으로 남긴 조선 회화의 정수를 만나보자.

Writer: 황태희 *Photo.* 호암미술관 *Reference.* 〈화인열전 1- 내 비록 환쟁이라 불릴지라도〉(유홍준 지음, 역사비평사)

‘환쟁이’를 자처한 정선의 그림에 대한 열정

겸재 정선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당시 중국풍 그림을 답습하던 관념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둘러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를 창안해 한국 회화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사대부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화인을 천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불구하고 스스로를 ‘환쟁이’라고 말하며 양반의 체통과 명예보다는 화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붓을 잡았다. 이뿐 아니라 그림에 타고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정선의 친구인 관아재 조영석은 〈관아재고〉에 “겸재가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선의 초기 진경산수화이자 금강산 그림은 1711년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이다. 그림 위에 산봉우리의 명칭을 표시한 이 작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경산수화의 화풍에 비하면 다소 미숙해 보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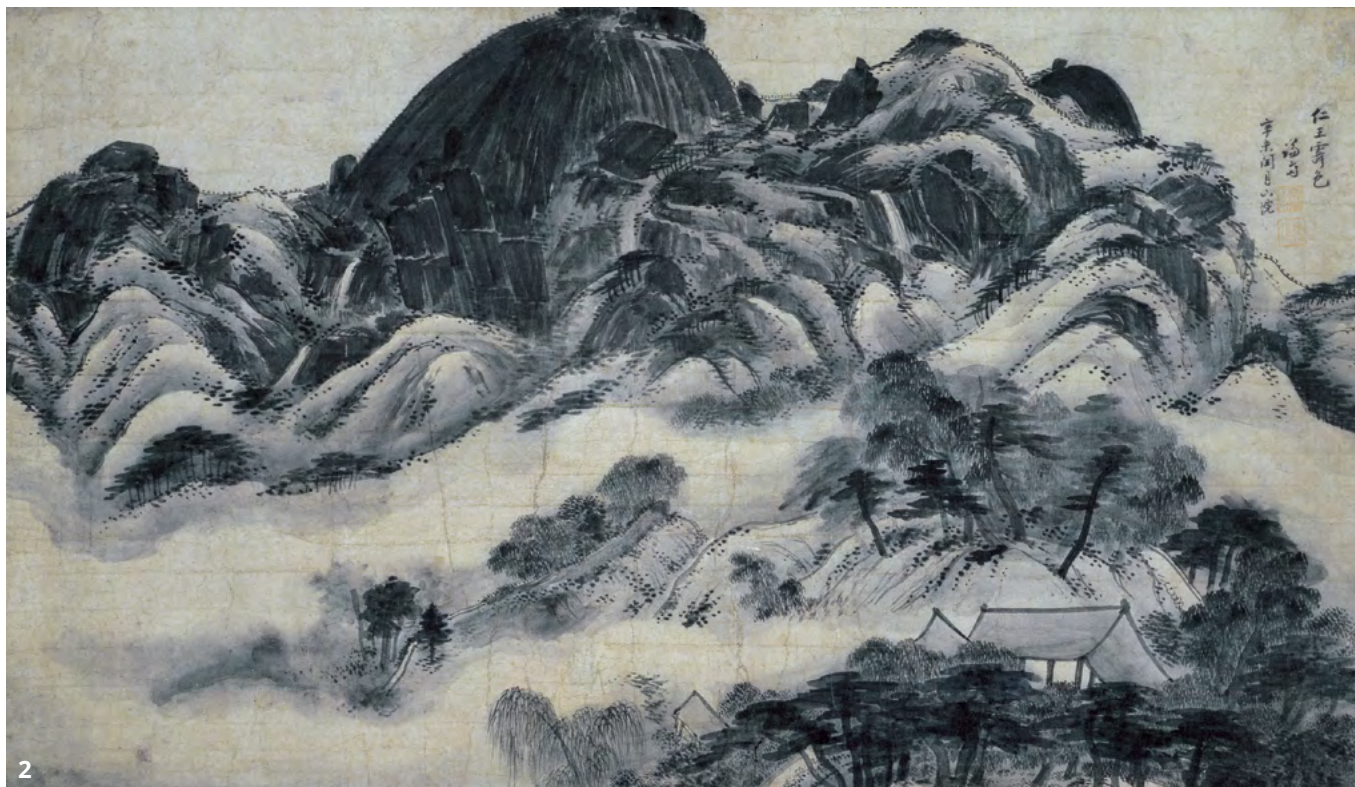
진경산수화의 형성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후 지방관을 지내거나 명승을 유람할 때마다 각지의 진경을 보고 그리며 진경산수화의 폭과 깊이를 더해나갔다. 현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금강전도’, ‘박연폭포’, ‘인왕제색도’ 등은 모두 그가 말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정선 회화세계의 전모를 엿보다

호암미술관이 한국 회화사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회화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 〈겸재 정선〉을 개최했다. 정선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전시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정선의 주요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리기 때문.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주옥같은 작품들까지 더해 정선 회화의 정수를 담아냈다. 전시는 정선의 대표작이자 국보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로 문을 연다. 1부 ‘진경에 거닐다’에서는 정선이 사랑한 금강산과 그가 나고 자란 한양 일대를 그린 작품을 통



1



2

1. <겸재 정선> 1부 전시장 전경
 2. 정선, '인왕제색도', 종이에 수묵, 79.2×138.2cm, 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회장 기증, 국보
 3. <겸재 정선> 2부 전시장 전경



3

해 정선을 대표하는 진경산수화의 흐름과 의미를 조명한 다. 2부 '문인 화가의 이상'에서는 문인화, 화조화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전시해 정선의 예술 세계 전모와 그가 품은 문인 의식 및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겸재 정선>은 6월 29일까지 진행하며, 2026년 하반기에는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과 출품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더해 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공개되는 전시 정보도 주목해보자.

정선이 사랑한 금강산 속으로

정선의 대표작 165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은 10년 만에 수장고 밖으로 나온 '금강전도'다. 2015년 리움미술관이 개최한 <세밀가귀(세밀可貴: 한국 미술의 품격)> 전시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선의 금강산 그림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금강전도'는 중국 산수화가 아닌 내금강 실경을 직접 보고 수

묵 담채로 그린 작품으로, 정선의 진경산수화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걸작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을 장대하게 담아냈으며, 좌우로는 정양사에서 혈망봉까지, 상하로는 비로봉에서 장안사에 이르기까지 내금강산 전역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편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경색이 달라져 봄에는 금강, 여름에는 봉래, 가을에는 풍악,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른다. '금강전도'가 금강산의 겨울을 그린 것이라면,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금강산 작품인 '풍악내산총람'에는 금강산의 가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가을 내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녹색, 황색, 적색, 흰색 등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이 '금강전도'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자아낸다. 정선의 '금강전도'를 두고 적은 제화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비록 발로 밟으며 지금 두루 다닌다 한들 머리맡에 두고 실컷 보는 것만 하겠나." 정선의 금강산 그림이 직접 유람하는 것 못지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쉬이 닿을 수도 없으니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



- 1 정선, '풍악내산총람', 비단에 채색, 100.8×73.8cm, 18세기 중엽,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 2 정선, '독서여가도', <경교명승첩> 중, 비단에 채색, 24.0×16.8cm, 1740~1741년,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 3 정선, '계상정거', <퇴우이선생진적첩> 중, 종이에 수묵, 25.4×40.0cm, 1746년, 삼성문화재단, 보물
- 4 정선, '사직송', 종이에 수묵 담채, 61.5×112.0cm, 18세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 5 정선, '박생연', 종이에 수묵 담채, 98.2×35.8cm, 18세기, 간송미술문화재단

을 터. 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가 평생 사랑한 금강산 속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붓 끝에 담은 문인 화가의 삶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장르의 그림에도 정통했다. 산수화나 인물화를 비롯해 다람쥐, 개구리, 풀벌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 전시 2부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정선이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추정하는 '독서여가도'는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 중 하나다. 1740년 12월 양천 현령으로 부임한 정선은 당대 뛰어난 시인인 이병연과 시와 그림을 서로 교환해 이를 <경교명승첩>이라는 시화첩으로 엮었다. '독서여가도'는 이 화첩에 담긴 작품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정선이 북악산 아래 유란동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그린 자화상으로, 시상에 잠겨 있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한 그림 뒤편의 서책이 쌓인 책장에서는 문인으로서 그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한 점씩 가지고 있는 정선의 작품이 있다. 바로 1,000원권 지폐 속 그림인 '계상정거'다. 지폐의 앞면에 퇴계 이황의 초상이 있다면 뒷면에는 퇴계가 도산서당에서 독서 중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정선이 퇴계 사후 177년이 지난 1746년에 퇴계가 생전에 머물렀던 도산서원의 전신인 도산서당과 주변 풍경을 산수화로 담아낸 것이다. <검재 정선> 전시를 통해 지폐 밖으로 나온 '계상정거'도 놓치지 말자. ●

관람 안내

전시 기간 4월 2일~6월 29일

전시 장소 호암미술관 전시실 1, 2

관람 시간 화~일요일 10:00~18:00(입장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요 작품 진경산수화, 인물화, 화조영모화 등 대표작 165여 점

도시를 잇는 곡선, 공간을 여는 건축 J. 마이어 H. J. MAYER H.

J. 마이어 H.는 세계적 건축가 위르겐 마이어가 이끄는 건축설계 회사로, 창의적 디자인과 친환경적 건축 기법을 통해 공공 공간과 도시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Editor: 두경아 Photo: J. MAYER H.



1996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한 J. 마이어 H.는 건축,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축 회사다. 도시계획과 건축물은 물론, 첨단 소재를 활용한 설치미술과 오브제 작업에 이르기까지 인체와 기술, 자연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새로운 공간 탄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창립자 위르겐 마이어 H. Jürgen Mayer H.는 미래지향적이고 조형적 곡선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형태의 건축물을 주로 설계하며, 도시 공공 공간과 건축을 접목하는 데 강점을 드러낸다.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건축디자인과 데이터 시각화 패턴을 도입해 도시 공간을 실험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 MoMA, 샌프란시스코 MoMA, 베를린 예술도서관 Kunstbibliothek Berlin,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속 베를린 주립박물관, 뮌헨 공대 건축박물관 Architekturmuseum der TU München 등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다.

이 건축 회사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세비야의 플라사 데 라 엔카르나시온 Plaza de la Encarnación 재개발 프로젝트 메트로폴 파라솔 Metropol Parasol, 벨기에 하셀트의 지방법원 Court of Justice, 독일 카를스루에 300주년 기념 파빌리온 KA300, 그리고 조지아(그루지야)의 공공·인프라 건축 프로젝트 등이 있다. 조지아에서는 메스티아 공항, 사르피 국경검문소, 고리와 로치니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 다양한 실험적 건축을 선보였다.

1. 서울시가 주최한 노들섬의 디자인 공모에서 위르겐 마이어가 제안한 'Nodeul Art Island' 조감도. 노들섬 전망대와 강북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로라는 콘셉트로 주목받았다.
2. 곡선형 유리 파사드와 친환경 디자인이 돋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 ADA1
3. 조지아 흑해 연안의 신도시 라지카. 도시 개발의 시작을 상징하는 구조물인 라지카 피어는 도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버섯을 형상화한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 메트로폴 파라솔_스페인 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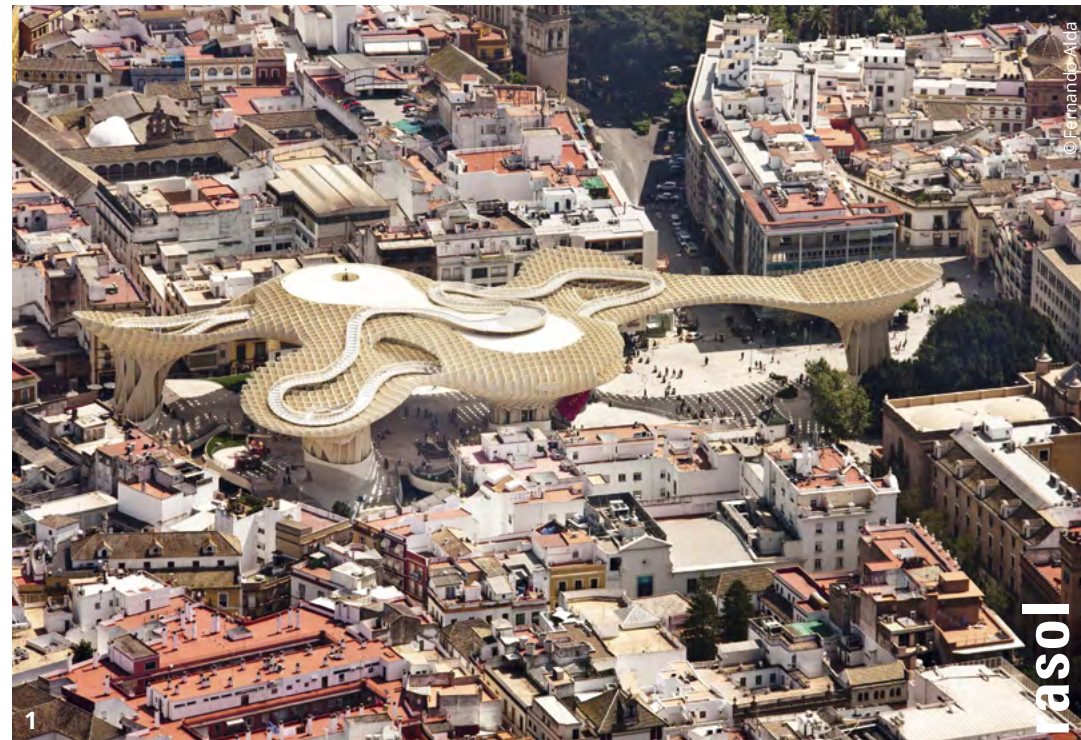
스페인 세비아 구시가지의 잉카르나시온 광장에 위치한 메트로폴 파라솔은 독특한 외형 덕분에 '세비아의 버섯(Las Setas de Sevilla)'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1년에 건설한 이 구조물은 세비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메트로폴 파라솔은 핀란드산 미세 적층 소나무(Micro-laminated Finnish pine) 3,500m³를 사용해 시공했고, 폴리우레탄 코팅을 입힌 접합 목재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크기는 가로 150m, 세로 70m, 높이 약 26m에 이른다.

J. 마이어 H.는 세비야시가 주관한 국제 설계 공모전

에서 총 65개 공모작 중 우승작으로 선정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이 회사가 선정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로마 식민지 유적을 건축디자인에 통합하는 설계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로마 유적이 발견되면서 계획은 변경되었고, 대신 오늘날의 메트로폴 파라솔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구조물은 세비아 대성당의 아치형 천장과 인근에 있는 피쿠스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으며, 전체적으로 거대한 6개 목재 파라솔이 버섯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메트로폴 파라솔은 단순히 조형물을 넘어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기능한다. 내부에는 고고학박물관, 중앙시장, 광장,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 그리고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톱 전망대도 조성되어 있다.



1. '세비아의 버섯'이라 불리는 세비아의 랜드마크 메트로폴 파라솔

2. 핀란드산 소나무를 사용해 시공한 메트로폴 파라솔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3. 내부에는 고고학박물관, 시장, 광장,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 루프톱 전망대도 조성되어 있다.

Metropol Parasol



PORT-O-Prenz

전통과 유연함이 공존하는 블록형 주택 프로젝트 포트-오-프렌츠_독일 베를린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극적 변화를 겪은 베를린 프렌츠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 이곳에는 수많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주거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했다. 이 동네에 위치한 포트-오-프렌츠는 폐쇄형 블록 구조와 넉넉한 중정을 결합한 설계를 통해 도시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주거의 질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집합 주택 모델이다. 6개 건물이 테라스처럼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유기적으로 흐르는 녹지 경관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빌헬름 시대 베를린 전통 중정의 흐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입주민 간의 관계형성과 이웃 간 유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총 240세대, 1~5룸 구조로 구성되며, 학생·가족·독신자·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거 여건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기존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주거 방식을 제공한다. 모든 세대는 발코니, 로지아(반개방형 발코니), 혹은 옥상 테라스를 포함한다.

외관 디자인 또한 주목할 만하다. 거리 측 파사드(입

면)는 곡선형 발코니와 유연한 전이 구조를 통해 유기적이면서 유동적인 건축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물결 모양의 불규칙한 난간이 블록 전체를 따라 흐르듯 이어지며, 건물 입면의 색조에 미묘한 변화를 유도해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낸다.



1. 6개의 건물이 테라스처럼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된 포트-오-프렌츠

2. 폐쇄형 블록 구조와 넉넉한 중정 공간을 결합한 설계가 돋보인다.

3. 물결 모양의 불규칙한 난간이 블록 전체를 따라 흐르듯 이어진다.



Court of Justice

개암나무 아래 들어선 법원 건물 하셀트 지방법원_벨기에 하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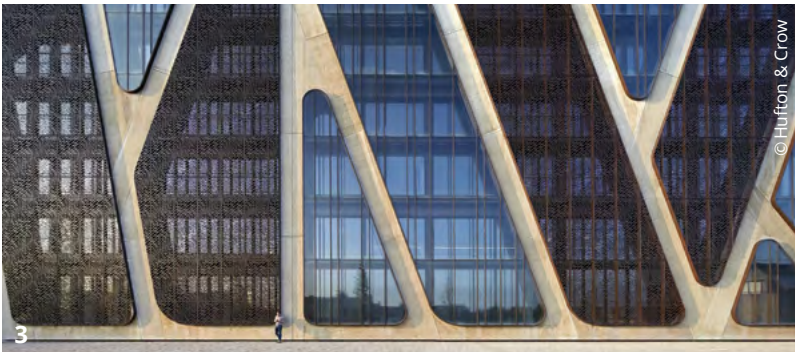
벨기에 하셀트에 위치한 하셀트 지방법원은 과거 철도 역 부지를 공원과 공공건물, 사무실, 호텔,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됐다. 이 프로젝트는 'West 8'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 자리한 고층 법원 건물은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이 건물은 J. 마이어 H.가 지역 건축 사무소인 아투오 건축 회사^{a2o Architecten}, 렌스 아스 건축 회사^{Lens'ass Architecten}와 공동 설계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2013년 완공해 선보였다.

건물 외관은 유리 파사드(입면)를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상징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유기적 곡선형 볼륨이 특징이다. 건물은 법정 공간과 더불어 대학 도서관, 로스쿨 강의실, 사무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보안과 동선을 고려해 건물은 3개 독립형 동으로 분리되며, 64m 높이의 오피스 타워 최상층에는 하셀트 시내와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건물 디자인에는 도시와 역사, 상징이 유기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셀트시 문장의 개암나무^{Hazelnut Tree}에서 착안한 형태다. 단순한 장식적 용을 넘어 중세 시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열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시도로 보



인다. 건물 내부에서도 나무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외관의 철제 구조물은 이 지역이 한때 산업 지역이었다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벨기에 남부에서 두드러진 아르누보 양식의 미학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 1_ 하셀트시 문장의 개암나무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건물 내부에서도 나무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 2_ 하셀트 지방법원은 과거 철도역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됐다.
- 3_ 건물 외관은 유리 파사드를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상징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유기적 곡선형 볼륨이 특징이다.



도심 한가운데 자연을 품은 곡선 JOH3_독일 베를린

베를린 도심 미테^{Mitte} 지역의 요하니스트라스에^{Johannisstraße}에 위치한 이 상업·주거 복합 건물 JOH3는 밀도 높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형 외관이 인상적인 프로젝트다. 이 건물은 전통 베를린식 다세대 주거 건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중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건물 외관을 감싸는 조각 형태의 슬래트^{Slat}, 차양 구조물 파사드 디자인은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건물의 실루엣과 중정의 계단식 정원에서 '도시 속 풍경^{Landscape in the City}'이라는 개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층에는 상업 시설도 들어서 외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모든 세대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중정 정원을 조망할 수 있다. 길이와 깊이가 서로 다른 슬래트는 자연광을 조절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양한 층고로 구성된 건물은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도심 속에서도 탁 트인 주거 경험을 하게 한다. 주거 유형 또한 다양하다. 개인 정원을 갖춘 타운하우스형 콘도미니엄, 전통적 단층 아파트,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입주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파사드, 계단실, 엘리베이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통합된 디자인 콘셉트는 이 공간을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독특한 삶의 경험으로 이끌어준다. ●



JOH3

- 1_ JOH3는 밀도 높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형 외관이 인상적인 프로젝트다.
- 2_ 모든 세대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중정 정원을 조망할 수 있다.
- 3_ 길이와 깊이가 서로 다른 슬래트는 자연광을 조절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The Nature of Home: The New Luxury Living

일상의 쉼터인 ‘집’과 세심한 호스피탈리티로 감동을 주는 ‘호텔’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최상의 환대를 선사하는 곳, 그러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이
럭셔리 하우스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Writer.* 이승률 *Photo.* 무와 제이드, 아만, 식스센스

MUWA JADE

단순한 주거를 넘어 삶의 태도와 안목을 담아낸 프라이빗 럭셔리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집과 휴양지, 일상과 여행의 경계를 허물며, 머무는 자체로 영감이 되는 곳. 오너의 취향과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럭셔리 하우스가 국내에 선보인다. 오는 10월, 강원도 춘천에 들어설 ‘무와 제이드 MUWA JADE’는 그동안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제시한다. 대체 불

가한 로케이션과 세계적 거장들이 섬세하게 디자인한 공간, 웰니스 경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어메니티 등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보다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무와 제이드는 자연을 벗 삼아 누리는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10만㎡(3만여 평)의 거대한 대지에 오직 32세대의 프라이빗 빌라로 구성됐다. 수려한 능선을 이루는 푸른 산과 북한강이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내고, 적당한 고도의 대지에

자리한 공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프라이빗한 일상을 보장한다. 무와 제이드의 특별함은 로케이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간 자체의 미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거장의 손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이는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 영국 하우저앤드위스 갤러리 정원가 독일 비트라 캠퍼스, 뉴욕 하이 라인 등 자연과 가장 가까운 정원을 꾸미기로 유명한 그가 디자인한 정원이 무와 제이드를 감싸안는다. 인테리어는 포시즌스 호텔과 로즈우드 호텔 등 글로벌 럭셔리 리조트와 세계 각국 슈퍼리치의 하이엔드 주거 공간 설계 경험이 풍부한 타라 버나드(Tara Bernard)가 맡았는데, 32세대 빌라 모두 외부 환경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자연을 온전히 만끽하도록 신경 썼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지 위에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다양한 어메니티도 함께한다. 한마디로 진정한 자연형 힐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16만㎡(4만8,000여 평) 규모의 ‘제이드가든’은 사계절 내내 녹음과 계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숲속 정원으로, 입주민이라면 제이드가든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바로 옆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회원제 골프 클럽 ‘제이드펠리스’가 자리한다. 제이드펠리스는 골프 자체보다 풍경으로 먼저 기억되는 곳. 태초의 지형을 따라 조성된 18홀 위로 10여 년에 걸친 마스터플랜이 정교하게 쌓여 있다. 걷는 순간마다 밀도 높은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플레이하는 내내 고요한 숲의 리듬이 느껴진다. 자연을 품은 로케이션이 무와 제이드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단지 내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비롯한다. 인도어 비스타 풀을 비롯해 스파, 골프 스튜디오 등을 갖춘 ‘무와 웰니스’를 마련했기 때문. 압권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무와 다이닝’으로, 조식부터 만찬까지 셰프의 손길로 완성한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식사하는 공간 자체가 독립된 테마형 프라이빗 룸인 덕분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최대 1만 명까지 동시 보관이 가능한 와인 까브(Cave)와 웅장한 스케일로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와인 라운지 등 무와 다이닝만의 특화 공간은 입주민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02-729-5931, www.muwajade.com

1_ 무와 제이드는 네 가지 타입의 빌라로 구성된다. 그중 ‘더 힐사이드’는 높은 층고에서 비롯한 여유로운 공간감이 특징인 단층 빌라로, 프라이빗 수영장과 넓은 정원을 통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2_ 무와 제이드의 정원을 담당한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
3_ 오직 32세대 빌라로만 구성된 무와 제이드. 수려한 능선을 이루는 산과 북한강을 끼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4_ 커뮤니티 하우스에 자리한 와인 라운지는 웅장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SIX SENSES LOIRE VALLEY

파리에서 90여 분,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루아르 밸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을 따라 펼쳐져 있다. 중세 시대로 시간을 돌린 듯한 동화 같은 고성과 드넓게 펼쳐진 포도밭 등 아름다운 전원적 풍광 덕분에 ‘프랑스의 정원’이라 일컫는 곳이다. 유명한 리조트 및 스파 브랜드 식스센스 SIX SENSES는 오는 2026년 루아르강 근처 레보르드 에스테이트 Les Bordes Estate 지역에 ‘식스센스 루아르 밸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52채 규모로 219m²(약 66평)~661m²(약 200평)로 구성된 빌라는 3~7개 침실을 갖추었으며, 모든 세대에는 개인 수영장이 딸려 있다. 프랑스 전통 건축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빌라는 자연과의 융합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넓은 창문과 테라스를 통해 자연 채광은 물론, 제

절의 변화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지열 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적 설계도 눈에 띈다. 입주자에게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육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특히 센딩 sending 서비스가 눈에 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밴을 타고 인근에 위치한 유명 골프 클럽과 테니스 코트, 승마장 등으로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는 것. 단지 내에는 식스센스가 자랑하는 스파 시설도 갖추어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www.sixsenses.com



1 고급 리조트를 떠오르게 하는 식스센스 루아르 밸리 외관
2 빌라에서 언제나 내부와 정원이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AMAN BEVERLY HILLS

고급 레지던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 세계적 럭셔리 호텔 & 리조트 그룹 아만 AMAN이 출사표를 던진다. 베벌리힐스 중심가에 28층 쌍둥이 타워로 건설 중인 원 베벌리힐스 내에 위치한 ‘아만 베벌리힐스’가 그 주인공. 아만 베벌리힐스에서의 삶은 단순한 고급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핵심은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허문 설계에서 비롯된다. 아만의 오랜 협력사인 세계적 건축 사무소 케리 힐 Kerry Hill Architects은 캘리포니아의 토착 식물을 활용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3만2,375m²(약 9,800평)에 이르는 광활한 야외 정원은 물론, 각 세대에는 개인 정원과 수영장을 마련할 예정. 덕분에 도심 한가운데서도 숲속의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여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건물 내에는 피트니스와 골프 및 스파 등 웰니스 시설은 물론 재즈

클럽과 프라이빗 영화관 등이 들어서며, 아만이 지은 레지던스답게 프라이빗 컨시어지 서비스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레지던스는 총 69세대로 2~5개 침실을 갖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준공은 2027년이다.

www.aman.com



1 아만 베벌리힐스는 각 층마다 정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캘리포니아 토착 식물을 활용한다.
2 각 세대마다 수영장 또는 온천이 자리한다.



여행이 예술이 되는 순간

Luxury Train in the World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되는 기차 여행.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황홀한 풍광을 감상하고, 파인다이닝을 즐기며
일반 여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전 세계 럭셔리 트레인을 만나보자.

Writer: 지언 Photo: 샬레트레블앤라이프



1, 3. 로키산맥을 가로지르며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2.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럭셔리 기차 여행에 대해 궁금하다면
'샬레트레블앤라이프'에서 만나보세요.

BBC 선정, 세계 3대 럭셔리 트레인 Rocky Mountaineer in Canada

빙하와 만년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침엽수림, 에메랄드빛 호수 등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로키산맥을 가장 깊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키 마운티니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행하는 이 관광 열차는 BBC에서 세계 3대 럭셔리 열차로 선정할 만큼 시설과 식사, 서

비스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만큼 좌석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 차창을 통해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편안한 좌석과 미쉐린 스타 셰프가 주문 즉시 요리하는 만족스러운 식사까지 즐길 수 있어 이 고객의 만족도는 최상이다. 밴쿠버를 출발해 재스퍼와 밴프, 레이크 루이스까지 이어지는 로키산맥의 절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도록 기차는 평균 시속 55km로 여유롭게 움직인다.

만년설로 둘러싸인 거대한 로브스산과 해발 1,731m에

자리한 에메랄드빛 레이크 루이스는 로키 마운티니어 여행 중 하이라이트다. 단순히 지나가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투어 차량으로 국립공원 곳곳을 탐방하거나, 곤돌라를 이용해 전망대에 오르고, 원한다면 헬기로 좀 더 광활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열차의 특이한 점은 낮 동안만 운행한다는 것. 하루 중 바깥정치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로 이동하며 밤에는 특급 호텔에서 숙박하며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원하는 일정에 따라 1박 2일부터 길게는 보름까지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다.



1

아시아를 관통하는 유러피언 럭셔리 트레인 Belmond Eastern & Oriental Express in Singapore & Malaysia

한국에서 가까우면서 이국적 풍경을 만날 수 있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그곳을 조금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벨몬드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 관심을 가져보자. 기차를 타고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총 1,500km 구간을 3박 4일 동안 여행하는 상품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말레이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특별한 아시아를 만날 수 있다. 벨몬드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는 유럽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로 시작해 80여 년간 상류층 사교의 장으

로 통한 벨몬드 트레인을 아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객실 바닥에는 말레이시아 전통 문양을 새긴 짐통슨 카펫이 깔려 있고, 금고와 헤어드라이어 등 호텔 못지않은 편의 시설과 24시간 버틀러 서비스(개인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바로 스파 시설. 디올Dior에서 운영하는 스파로 디올의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과 아시아 전통 테라피를 결합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여정은 말레이시아의 정글로 떠나 야생을 체험해보는 '와일드 말레이시아'와 천상의 휴양지 랑카위로 떠나는 '에센스 오프 말레이시아' 중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

1,2 고급스러운 우드 마감의 열차 내부. 객실은 침대를 비롯해 숙박하기에 부족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3 아시아의 울창한 정글을 지나며 이국적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3

세계에서 가장 긴 남북 종단 열차 The Ghan in Australia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다양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호주. 그런 호주를 한 번에 관통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열차를 이용하는 것. 186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웃백을 탐험하고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 아프간 낙타 물이꾼에서 이름을 따온 더 간은 호주 레드 센터 Red Center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90년 전통의 열차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남북 종단 열차다. 호주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호주의 언덕과 평야의 전원 풍경을 지나 강렬하면서도 드넓은 사막 레드 센터를 관통해 열대우림의 톱 엔드Top End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세계 최고의 철도 여행 중 하나로 꼽힌다.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중간 앨리스스프링스Alice Springs와 캐서린Katherine 같은 유명한 아웃백 타운을 둘러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 간을 이용하며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이벤트는 아웃백에서 마주하는 일출이다. 열차에 탑승해 런치와 디너, 라운지에서 와인, 맥주

등을 즐기다 새벽녘이면 기차에서 내려 따뜻한 커피와 에그롤을 맛보며 여유롭게 대지를 붉게 밝혀오는 아웃백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일몰 시간에 맞춰 울루루Uluru를 배경으로 즐기는 BBQ 디너와 한밤의 별자리 투어다. 그 외에도 차량이나 헬기를 이용해 주변 협곡 탐험에 나설 수 있다. 황량한 사막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에 비해 이보다 좋은 기회도 없을 것이다.

1. 호주 평원을 가로지르는 더 간

2. 객실은 트윈 베드, 더블베드 등 선택 가능하며 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



1. 하루 동안의 짧은 여정이지만 영국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2. 테마에 따라 열정 넘치는 셰프의 다양한 코스 요리가 제공된다.
3. 고풍스럽고 빈티지한 열차 내 레스토랑

1920년대로 귀환 Belmond British Pullman in England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벨몬드 브리티시 풀먼을 이용해보자. 1920~1950년대 제작한 열차를 복원해 인테리어만 손본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럭셔리 트레인이다. 너무 올드하다고? 고풍스럽고 빈티지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한 법. 당시 특유의 럭셔리함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빛을 발한다. 런던의 빅토리아역을 출발해 남서쪽 켄트 지역을 지나 다시 빅토리아역으로 돌아오는 하루 동안의 짧은 여정이지만, 여행의 특별한 기억을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객차마다 오드리Audrey, 베라Vera, 미네르바Minerva 등 이름을 붙여 개성을 더했다. 무엇보다 남다른 색감과 미장센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구축해온 웨스 앤더슨 감독이 직접 인테리어디자인에 참여한 시그너스Cygnus 객차는 마니아들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벨몬드 브리티시 풀먼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중 '움직이는 살인 미스터리A Moving Murder Mystery' 테마 열차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내내 미스터리한 용의자들을 직접 만나고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탐정 이벤트를 즐길 수 있어 짧은 여정에 재미를 더한다. 또 하나, 벨몬트 브리티시 풀먼은 단순히 풍경과 객차 분위기만 즐기는 여행이 아니다. 핵심은 셰프의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메뉴는 열차의 테마별로 3~5코스 제공하며, 브런치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맛보는 음식은 기차가 지나가는 농장과 들판에서 조달한 재료로 만들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들에게 영감받은 디자인 La Dolce Vita in Italy

라 돌체 비타La Dolce Vita! 이름처럼 '달콤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열차가 등장했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사에서 선보이는 이탈리아 전역을 종단하는 열차로, 2025년 5월에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라 돌체 비타는 가장 딱딱딱한 럭셔리 트레인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 호텔 그룹 아코르Accor에서 그 이름과 뜻에 맞게 호화로운 객실로 열차를 재해석했으며, 인테리어는 디모레 스튜디오가 맡아 197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모던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꾸몄다. 내부는 일반 좌석 없이 모두 고급 침대가 있는 객실이며, 12개 딜럭스 캐빈과 18개 스위트로 구성했다. 모두 개인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라 돌체 비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벤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숙박과 파티 등 호화로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개인이나 단체가 객차 한 칸 또는 열차 전체를 통째로 빌려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1박 혹은 2박 일정으로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포르토피노, 토스카나,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와 아름다운 남부 해안선



을 돌며 특별한 여정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이닝에서는 미쉐린 스타 셰프가 준비한 이탈리아 각 지역의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최대 40명까지 이용 가능한 식당 칸과 라운지 바도 있다. 각 정차 역에서는 미술관 투어, 와인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 미쉐린 셰프의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이닝 시설
2. 객실에는 넓은 침대와 샤워 시설, 테이블 등 호텔 못지않은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3. 2025년 5월에 첫 운행을 시작하는 라돌체비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계, 데코덴티티

본 제품보다 그것을 꾸미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쏟는 소비 시장이 열렸다.

Writer: 한소영 Photo: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 <트렌드코리아 2025>(김난도 외 9명 지음, 미래의창), <기업 읽어드립니다>(이가희 지음, 찌판사)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몇 년 전, 어느 반려견 유치원이 진행한 가방 꾸미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가방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각종 인형 열쇠고리를 가방에 주렁주렁 매달아 정작 가방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요란하게 꾸민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는데, 1등을 차지한 가방의 주인은 ‘곰자’라는 강아지였고, 그 가방을 꾸민 반려인은 바로 배우 조승우였다. 반려견에 대한 다소 극성스러운 애정이 느껴지는 이 요란스러운 가방, 그런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다. 지금 바로 거리에 나가 사람들이 멘 가방을 관찰해보면 요란스럽게 액세서리를 단 가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보다 그 물건을 장식하는 일에 몰입하는 소비 트렌드가 불황을 뚫는 마케팅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애정하니까 꾸민다

이런 꾸미기 현상을 표현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데코덴티티’, 장식을 뜻하는 데커레이션(Decoration)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결합한 말로, 어떻게 꾸몄느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DIY(Do It Yourself)와는 좀 다르다. DIY는 자신이 직접 배워서 기성품을 대체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면, 데코덴티티는 같은 상품을 사서

“

가벼운 주머니 사정과 과한 자기애가 만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데코덴티티를
추구하는 것에 이른 것이다.

”

꾸미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을 만든다.

자기 가방을 꾸미든, 반려견의 가방을 꾸미든 남들과 똑같은 물건을 공들여가며 나답게 꾸미는 일은 자신에 대한 애정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데코덴티티 현상은 그 어느 세대보다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지 세대(Z-generation,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꾸미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한편,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이들에게는 비교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작은 액세서리, 즉 장식용 상품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과 과한 자기애가 만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데코덴티티를 추구하는 것에 이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은 배우 조승우의 반려견과 각종 인형 키링을 매단 가방 모습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 꾸미는 장식을 별도 판매했다.

주객전도! 토핑 경제의 시작

올해 트렌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토핑 경제’다. <트렌드코리아 2025>에 따르면 토핑 경제에서는 본체보다 액세서리 같은 토핑이 더 주목받는다. 토핑 경제의 본질도 결국 꾸미기라는 말이다. 책에서는 “타인과 다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생긴 트렌드”라고 분석했다. 어떤 상품을 샀는지보다, 똑같이 생긴 공산품을 어떻게 꾸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본체보다 주목받는 액세서리라면 미국의 신발 브랜드 크록스에 꽂는 액세서리 ‘지비츠’가 대표적이다. 원래 보트를 타는 사람을 위한 신발로 만든 크록스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수지로 만들어 물이 잘 빠지고 통기가 잘되는 대신 그 모양이 투박하고 단순하다. 지비츠는 세 아이의 어머니 셰리 슈멜저Shery Schmelzer가 아이들이 신는 크록스에 리본이나 액세서리를 달아준 데서 시작했다. 액세서리를 단 크록스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다. 이에 착안한 슈멜저 부부는 지비츠라는 액세서리 업체를 차렸고, 이 업체가 성장하면서 크록스는 2006년 지비

츠를 1,000만 달러(당시 한화 116억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지금 크록스는 젠지 세대를 만나 시장에서 순항 중이다. 젠지 세대는 자신의 개성대로 크록스를 마음껏 꾸미며 이 모습을 공유했고, 서로 다른 다양성 자체가 유행이 됐다. 지비츠, 즉 토핑이 없었다면 크록스는 그저 평범하고 투박한 신발에 그쳤을지도 모른다.

토핑 경제에서는 상품의 본질적 속성보다 부가적 요소가 더 주목받는다. 여기서 생겨나는 제품 기획 전략은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꾸밀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것, 즉 이미 완벽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 것, ‘덜 만들라’는 것이다. 요식업 브랜드 요아정을 예로 들어보자. 요아정은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체인 브랜드로, 토핑을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핑 옵션을 두고 있다. 하나를 먹어도 내 취향에 맞춰 먹고 싶은 이들이 이러한 토핑 선택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은 하루아침에 핫한 디저트로 부상했다. 여기에 비춰본다면,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완제품을 내놓는 데 자원을 쏟기보다 소비자가 개인의 입맛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토핑 시스템을 갖추는 데 골몰하는 편이 더 경쟁력 있는 전략일 것이다.

“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꾸밀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것, 즉 이미 완벽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 것, ‘덜 만들라’는 것이다.

”



크록스 신발에 꽂는 액세서리 지비츠는 데코덴티티 마케팅의 교과서다.



최근 다이어리를 꾸미는 취미가 ‘다꾸’라는 신조어와 함께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사진을 꾸미기도 한다. 반려견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변환한 이미지

돌고 도는 트렌드, 기회는 다시 온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방영해 세계적 히트를 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세련된 도시 취향을 지닌 뉴요커, 주인공 캐리는 파티에 온 어느 여성을 두고 뉴요커가 아닐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유는 그 여성이 일명 ‘곱창끈’으로 머리를 묶었기 때문이다. “뉴욕에 사는 여성은 절대 곱창끈을 쓰지 않아.” 캐리의 말대로 그 여성은 뉴욕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20여 년 전 드라마에서 유행하던 한물간 곱창끈이 최근 몇 년간 다시 유행했다. 이제 무엇이 지나간 유행이고, 무엇이 최신 유행인지도 헷갈릴 지경이다. 가방에 요란스럽게 액세서리를 다는 등 과한 장식 역시 한때는 한물간 취향으로 치부됐지만, 지금 다시 최신 유행으로 소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레트로retro’라는 말 대신 뉴트로New+retro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몇 시간씩 들여 다이어리를 꾸미는 데 열중하는 취미가 주목받으면서,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인 ‘다

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학교 앞 문방구가 하나둘씩 폐업하고, 서점 한쪽에서 각종 문구류를 팔던 아트숍의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뉴트로 현상 덕분에 문구류 업계도 다꾸 열풍에서 다시 활기를 찾은 분위기다. X세대(대체로 1970년대 출생)에게 다이어리는 청춘의 상징과도 같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없던 시절, 일정을 관리하고 메모하는 다이어리는 필수품이었다.

최근 챗GPT를 활용해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한 장면처럼 변환하는 일명 ‘지브리풍’ 사진 꾸미기가 유행하는 것도 뉴트로와 데코덴티티로 분석되는 측면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오래된 동양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그림체로 사진을 꾸민다? 이건 레트로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일종의 뉴트로다.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것보다는 사진을 꾸며서 나타난 결과물이 더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데코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다. AI를 이용해 지브리풍으로 데코덴티티를 드러내는 젠지 세대를 보고 있으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



국내외 최정상 창작진·성악가 집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제작진과 성악가들이 참여한 신작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이 오는 5월 2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세계 초연된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의 제작 극장 도약을 선언하는 이번 작품은 한국 전통 소재를 현대적 미장센으로 재창조해낸 영어 오페라로, 2023년 〈노르마〉, 2024년 〈오텔로〉에 이은 야심 찬 프로젝트다. 물의 정령에 홀린 공주, 그리고 왕국을 구하려는 여성 물시계 장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오페라 문법을 과감히 탈피한 신화적 상상력을 풀어낸다. 주목할 점은 동양의 상징 ‘물’과 ‘시간’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남성 중심 구도의 고전 오페라에서 벗어나 여성 주인공들의 능동적 서사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세계 초연이라는 수식어를 단 만큼 오페라 애호가는 물론,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무대로 주목받는다.

작품의 음악은 호주의 대표 작곡가 메리 핀스터러(Mary Finsterer)가 맡았다. 고전 오페라 양식에 현대음악의 실험성을 결합해 물의 흐름처럼 유기적이고 세밀한 음악 언어를 완성했다.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활약한 그녀는 장면마다 감정의 곡선을 정교하게 빚어내며, 청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대본은 호주의 대표 극작가 톰 라이트(Tom Wright)가 썼으며, 물과 시간에 얽힌 신화적 내러티브를 극적 텍스트로



구성했다. 연출은 시카고 리릭 오페라와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은 스티븐 카(Stephen Carr)가 맡아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무대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초연의 특별함으로 만나는 완성형 신작

지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데드맨 워킹〉, 〈그라운드드〉를 지휘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티븐 오즈굿(Steven Osgood)이 맡는다. 그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치밀한 해석과 풍부한 사운드로 작품의 긴장과 감동을 이끌 예정이다.

무대 위에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악가들이 등장한다. 물의 정령에 사로잡힌 공주 역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소프라노 황수미가 맡았다. 장인 역에는 강인한 음색과 깊이 있는 해석력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해온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출연하며, 제자 역은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활약 중인 테너 로빈 트리츨러(Robin Tritschler)가 맡는다. 왕국의 왕 역은 베이스바리톤 애슐리 리치(Ashley Riches), 물의 정령 역은 유럽에서 활동 중인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맡아 작품의 신비감을 배가시킨다. 노이 오페라 코러스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각각 합창과 연주를 책임진다. 물과 시간이라는 보편적 테마를 바탕으로, 라틴어와 한국

어를 절묘하게 녹여낸 영어 오페라는 다양한 문화의 청중에게 열려 있는 작품임을 방증한다. 오페라라는 장르에 다소 거리감을 느껴온 관객도 이 작품을 통해 ‘극장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시적인 영화’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5월 25일(일), 29일(목), 31일(토) 총 3회에 걸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다. 티켓은 R석 18만원부터 D석 1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었으며,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 콜센터(1668-1352),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창작 오페라의 세계 초연이라는 보기 드문 기회를 놓치지 말자. ●

1. 물시계 장인이 왕국으로 불려오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21세기 동화 〈물의 정령〉 오페라 포스터
2. 연출을 맡은 스티븐 카
3. 호주를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 메리 핀스터러
4. 특유의 카리스마로 장인 역을 맡아 관객을 사로잡는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5.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른 소프라노 황수미가 물의 정령에 사로잡힌 공주 역을 맡았다.

오직 단 한 번의 경험, 세계 초연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K-오페라의 새 지평이 열린다.
세계가 주목한 창작진과 국내외 최정상 성악가들이 함께 펼치는 세계 초연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이 그 서막을 연다.

Writer: 강은진 Photo: 예술의전당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 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해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아라가야의 숨결이 깃든 고장, 함안

1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경상남도 중남부에 자리한 함안은 일반 여행자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곳이 지난 2023년 함안에 있는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지역의 7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조용하던 찬란했던 가야문화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말이산고분군은 총 넓이 79만 7282.5m²로 규모가 가장 크고,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가야연맹의 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분군으로 평가받는다. 해발 40~70m의 구릉 능선에 자리한 말이산고분군은 남북으로 2km에 달하며, 현재 봉분이 확인된 184기 외에 봉분이 조성되지 않은 고분의 기수까지 포함하면 1,00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13호분에서는 남두육성과 청룡 별자리 등 고대 동양의 별자리를 기록한 천장 덮개석이 발견됐다. 이는 아라가야가 천문 관측 기술과 항해술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한편, 중국·고구려와 교류했다는 증거로 고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정세를 짐작케 하는 증거가 된다. 그 외에도 고분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집·배 모양 도기, 사슴 모양 뿔잔 등 상형 도기 일체와 말갯춤·말안장 등 철제 제품, 옥 목걸이 등 268점의 유물이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어 당시 가야의 철제 문화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다.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 055-580-2561

2,000년 전 이곳에는 찬란한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다. 기원 전후부터 500여 년간 한반도의 남쪽을 다스린 아라가야의 도읍, 경남 함안이다. 우수한 토기 문화, 뛰어난 천문 관측 기술 등 고대를 빛낸 아라가야의 숨결을 함안에서 느껴보자.

Editor: 정상미, 김은아 Photo: <SRT 매거진>, 한경DB



1_ 2,000여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말이산고분군
2_ 말이산고분군 일대 전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2, 3호분



2

선비가 사랑한 운치 고려동유적지 & 무진정

함안은 지조 높은 이들이 사랑한 고장이다. 고려 후기 성균관 진사 이오 선생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함안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산인면에 고려 유민의 거주지라는 뜻의 '고려동학' 비석을 세우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충절을 지켰다. 그의 유언에 따라 후손들 역시 19대 60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 유적지 입구에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600년 전 심은 배롱나무가 선비의 절개를 증언하듯 서 있다. 조선 시대의 선비 무진 조삼 선생 또한 함안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요직을 거친 그는 자신의 호를 딴 무진정을 짓고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작은 못과 정자로 이뤄진 공간이 소박하지만, 이곳을 둘러싼 수목이 사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빛난다. 무진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년 4~5월에 열리는 낙화놀이이다. 2008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함안 낙화놀이는 한지 안에 숯가루와 광목 심지를 넣어 불을 붙이는 전통적 세시 놀이로, 어두운 밤 연못 위로 떨어지는 화려한 불꽃들의 장관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낙화놀이는 낙화놀이보존회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해야만 관람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려동유적지

📍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2길 53

☎ 055-580-2555

무진정

📍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4길 25

☎ 055-580-2551



1. 무진정의 운치 있는 풍경
2.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올리는 5월에 열리는 무진정 낙화놀이
3. 이오 선생의 고려에 대한 충절을 느낄 수 있는 고려동유적지
4. 수령 600년이 넘는 배롱나무가 이오 선생의 정절을 증언하는 듯하다.

3

조선 후기 정원 문화의 진수 무기연당

조선 시대 선비의 발자취를 더 좇고자 한다면 무기연당으로 향해보자. 무진정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주씨 가문의 종가 '무기리 주씨 고가'가 자리한다. 주세붕 선생의 방손인 주재성의 업적을 기리고자 1700년대에 조성한 곳이다. 솟을대문을 지나 한서문에 이르면 선비가 두고두고 사랑했을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 정원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무기연당이다. 길이 20m, 폭 12.5m 규모의 정방형 연못은 둘레에 2단 석축을 쌓았고, 못 한가운데 신선의 세계를 상징하는 봉래산을 만들었다. 정자 하환 정에는 햇살 드리운 물그림자가 흐르고,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을 뜻하는 누각 풍욕루가 노송 앞에 어우러진다. 주세붕 선생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무산사가 무기연당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으니 함께 둘러봐도 뜻깊을 것이다.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055-580-2301



4

고려 시대 연꽃 모습 그대로 함안 연꽃테마파크

2009년 성산산성에서 특별한 씨앗이 출토되었다. 바로 700여 년 전 고려 시대의 연꽃씨가 발굴된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오랜 세월을 이겨내고 2010년 다시 한번 꽃을 피운 것이다. 함안군은 연꽃의 부활을 기념해 이름을 짓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함안 연꽃테마파크다. 옛 가야 지구의 천연 늪지를 활용해 만든 자연 친화적 테마 공원으로, 고려 시대 탕화에 등장하는 연꽃과 똑 닮은 아라연꽃을 볼 수 있다. 공원에서는 연꽃테마파크 이름답게 아라연꽃 외에 홍련·백련·수련·가시연 등 50여 종의 다양한 연꽃이 자라고 있으며, 연꽃의 개화 시기인 7~8월에 가면 연못을 뒤덮은 연꽃의 장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 왕궁1길 38-20
☎055-580-4595



5

노을빛에 사로잡히다 악양독방

악양독방은 함안의 매력적이고 고즈넉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왕복 6.5km의 악양독방 길은 전국에서 가장 긴 제방 길로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다. 봄에는 꽃양귀비·안개꽃 등 양증맞은 봄꽃을, 가을엔 코스모스와 메밀꽃·땃싸리 등이 피어나며, 독방 길과 맞닿은 악양생태 공원에서는 4,611m² 면적에 만개한 핑크몰리가 분홍빛 물결을 이루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해 질 녘에 방문한다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듯 저 멀리 펼쳐지는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남강, 둥그스름한 고분, 그리고 드넓은 논밭이 온통 붉게 물드는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 풍경이 함안2경에 꼽힌다고 하니 감상해보자.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73-4



필사의 힘

우리가 글쓰기를 처음 배운 방법,
필사는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Writer: 한소영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설마 필사가 유행할 줄이야! 지난해 3월 출간한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유선경 지음, 위즈덤하우스)는 출간 후 단숨에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더니, 불과 몇 개월 뒤 출판사는 노트를 콘셉트로 한 표지로 갈아입은 특별판을 새로 내놨다. 이 외에도 필사 관련 신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책을 읽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금, 읽기를 넘어 쓰기를 제안하는 필사책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정서된 글씨 위에 비치는 종이를 대고 열심히 따라 쓴 기억, 누구나 있을 것이다. 글씨를 잘 쓰고 싶어 연필로 꼭꼭 눌러쓰는 마음, 어른이 된 지금 필사하는 마음도 이와 비슷할 터. 읽는 것만으로는 그 좋은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 글로 써서 남기고 싶다. 좋은 말을 더 오래 내 안에 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필사할 결심을 하는 것이다.

글쓰기 그리고 마음 챙김 연습까지!

경험자들이 추천하는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

인 필사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필사할 글을 직접 고른다. 길지 않은 기사나 에세이가 글의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한다. 필사할 글을 골랐다면 처음에는 눈으로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 큰 맥락을 파악했다면 이제 세세한 문장 연결이나 어휘 등에 집중해서 다시 읽는다. 전체 글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필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비로소 문장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며 필사할 수 있다. 좋은 글을 필사하면 마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필사 책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독자가 무조건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글을 쓰고 싶어 필사 책을 찾는 것은 아닌 듯하다. 좋은 문장을 천천히 따라 쓰는 시간 동안 마음의 고요와 평온이 찾아온다.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이 아닌 이미 완성된 글을 따라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다. 다소 수동적일지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머리를 식히는 데 이만한 것도 없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단 좋은 문장과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필사를 시작해보자. 오래전에 읽고 책장 한쪽에 꽂아놓은 책을 꺼내 필사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사를 시작하기 좋은 책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유선경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10월

문구류 브랜드 컴포지션스튜디오의 다이어리 디자인을 표지에 그대로 옮긴 이 책은 그래서 마치 다이어리를 쓰는 기분이 든다. 출판사가 브랜드와 협업해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출간한 특별판이다. 국내외 수많은 작품의 명문장을 다루고 있다. 문장을 발췌한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독서 입문서 역할도 톡톡히 한다.



<초역 부처의 말 필사집>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박재현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5년 3월

지난해 출간된 이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꿰차고 있는 <초역 부처의 말>이 필사책으로 나왔다. 넓은 포용력을 지닌 부처의 말을 필사하고 싶노라면 화, 험담, 비교, 집착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온갖 감정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은 어휘를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이주윤 지음 | 빅피시 | 2024년 11월

우리는 간혹, 아니 꽤 자주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곤란을 겪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무려 51만여 개의 단어가 등재돼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수십만 개의 단어가 미지의 세계처럼 남아 있다. 아름다운 글을 필사하는 것은 어휘력을 향상하는, 아마도 가장 호사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영어 명문장 필사 노트>

이근철 지음 | 링크북스 | 2025년 2월

이 책은 영어를 학습하면서 삶에 대한 통찰과 영감을 얻는 방법으로 필사를 제안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원어민의 대사를 따라 하면서 영어의 발음, 억양, 리듬까지 익히는 '새도잉(Shadowing)' 학습법과 비슷하다. 세계적 소설가, 과학자, 화가, 기업가, 정치인, 디자이너 등이 구두로 발화한 명언을 필사하면서 영어 학습을 하는 동시에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헌법 필사>

대한민국 지음 | 더휴먼 | 2024년 10월

'일생에 한 번 헌법을 필사하라'. 이 책에 달린 부제다. 이제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다.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작은 안온함조차 헌법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음을 실감하는 시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헌법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다 보니 그 내용이 생각보다 쉽고 일상과 가깝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독자평이 많다. 일생에 한 번쯤 헌법을 필사해야 한다!



<어른의 품격은 고전에서 나온다: 정민 교수의 고전 필사>

정민 지음 | 김영사 | 2025년 3월

동양 고전의 짧은 경구를 담은 필사책이다. 글을 쓰는 기교보다는 짧은 글에 들어 있는 통찰에 주목하면서 필사해보자. 고전학자 정민 교수가 뽑은 100개의 경구에서는 평범한 듯하면서도 무한한 생각의 깊이가 느껴진다. 삶에는 최소한 영영이를 바닥에 붙이고 바로 앉아 짧은 문장 하나 정도 적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라테나골프클럽

품격이 살아 있는 춘천의 명문 클럽

크고 작은 호수와 드넓게 펼쳐진 페어웨이 속에 도전적이고 다채로운 라운드의 묘미를 숨겨둔 곳이 있다. 바로 라테나골프클럽. 긴 홀 길이와 투 그린 시스템, 국내 몇 안 되는 유리알 그린, 험난한 라운드를 도와줄 베테랑 캐디까지 골프 라운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라테나골프클럽

넓고 긴 파4홀로 구성된 네이처 9번 홀

골프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승패를 가르는 대표적 스포츠로 꼽힌다.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생애 동안 4대 메이저를 모두 섭렵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로리 매킬로이(36·북아일랜드)는 우승한 뒤 “오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힘들지만 나는 선을 넘었다”며 멘털 관리가 가장 힘들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딱 두 사람이 맞붙는 매치플레이 방식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회도 5일간 열리는 데다 준결승과 결승을 하루에 다 치러야 한다. 워낙 팽팽한 접전이 많아 연장 승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철 멘털이라도 상대를 누르기 힘든 이유다.

2009년 5월에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그랬다. 1990년생 동갑내기 유소연과 최혜용은 연장 9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결국 4m 버디를 낚은 유소연이 파에 그친 최혜용을 눌렀다. 이 기록은 KLPGA 투어에서 최다 연장전 기록으로 아직까지 살아 있다. 당시 낮 12시 8분에 시작한 둘의 대결은 오후 7시 15분이 돼서야 끝났다. 오전 7시에 시작한 준결승전까지 포함해 이날 12시간 넘게 골프채를 휘두른 두 사람은 경기가 끝난 뒤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다리가 풀렸는지 둘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아홉 차례 연장전은 모두 한 홀에서 열렸다. 주인공은 강원 춘천 라테나GC의 시그너처 홀인 가든 코스 9번 홀(파 5). 굿 샷에 대한 보상과 미스 샷에 대한 응징이 확실한 홀이다. 일단 길다. 블루 티 528m, 화이트 티 503m, 레드 티 425m다. 모두 왼쪽 그린 기준. 라테나GC는 모든 홀에 그린이 2개씩 있는 투 그린 홀로 이뤄졌다.

대회 때는 전장이 다소 짧은 오른쪽 그린을 쓰는데, 그래도 블루 티 513m, 화이트 티 488m, 레드 티가 410m에 이른다. 코스 왼쪽에는 100m 이상 쪽뽕은 비치 벙커와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살벌한’ 홀을 만난 건 17개 홀을 돌면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18번 홀로 배치된 시그너처 홀의 티잉 구역에 서자 위압감부터 느껴졌다.



IP 지점이 좁아 좌우측의 해저드와 슬라이스를 조심해야 하는 가든 9번 홀

BJ 싱도 다녀간 춘천의 명문

기자가 찾은 날, 깃대는 왼쪽 그린에 꽂혀 있었다. 라테나 GC 관계자는 “내로라하는 ‘거포’가 아니면 2온은 힘들다. 세계 치려다 당겨지면 공이 비치 벙커나 해저드에 들어간다. 3온을 노리는 게 좋다”고 했다. 욕심을 버리니 결과가 좋았다. 스위트스팟에 맞은 공은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졌다. 거리를 제법 났다고 생각했는데, 캐디에게서 “250m 남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역시 길었다.

27홀 규모의 라테나GC는 춘천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장으로 꼽힌다. 대기업(두산그룹) 산하 골프장답게 잔디 관리의 물론, 각종 서비스도 나무랄 데 없다. 그 덕분에 1995년부터 남자 골프 대회 ‘패스포트 오픈’을 열었고, 2007년부터는 여자 골프 대회 두산 매치플레이 장소로 쓰이고 있다. 1995년 패스포트 오픈 우승자는 당시 타이거 우즈의

라이벌인 ‘검은 진주’ BJ 싱이었다. 1990년 춘천CC로 문을 연 이 골프장의 밑그림을 그린 이는 남촌CC, 자유CC 등을 설계한 김명길 씨다. 라테나GC로 이름을 바꾼 건 2007년이였다. 라테나는 레이크^{Lake} 코스의 ‘La’, 가든 Garden 코스의 ‘De’, 네이처^{Nature} 코스의 ‘Na’에서 따왔다. 두산그룹은 야구만큼이나 골프 사랑으로 유명하다. KLPGA 투어 대회를 10년 넘게 열고 있을 뿐 아니라,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역사가 긴 ‘디오펜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Official Patron}로 참여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디오픈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올해로 13년째(2020년 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 그룹 로고를 대회장에 내걸고 있다. 디오픈은 세계 약 200개국 6억 가구에서 시청하는 빅 이벤트다. “두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라테나GC가 두산 품에서 떠날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가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내리막의 짧은 파 4홀로 된 네이처 5번 홀

박인비도 인정한 유리알 그린

세컨드 샷을 칠 때 왼쪽 비치 벙커와 해저드를 너무 신경 썼나 보다. 생각보다 더 오른쪽으로 밀렸고, 공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던 벙커에 빠지고 말았다. 캐디는 “이 골프장에 81개 벙커가 있는데, 그중 6개가 이 홀에 있다”며 “미스 샷에 대한 페널티가 가장 확실한 홀”이라고 했다. 레이업으로 공을 꺼낸 뒤 네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렸다. 공은 홀에서 약 5m 지점에 멈춰 섰다. 평소 같으면 파를 낚기 위해 공이 홀을 지나치도록 쳤을 테지만 용기가 안 났다. 앞선 17개 홀에서 겪은 경험 때문이다. 이날 캐디가 불러준 그린 스피드(스팀프미터 기준)는 3.1m지만 체감 스피드는 3.5m 이상이었다.

라테나GC는 ‘유리알 그린’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골프장이다. 잔디잎을 뺏뺏하게 세운 뒤 깎기를 반복해 얻은 결과다. 투 그린 시스템인 덕분에 홀마다 쓰지 않은 그린 하나를 정성스레 관리할 수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유리알 그린의 원조로 불리는 마스터스 수준인 4.0m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 당시 그린 스피드는 4.0m였다. 대회 첫해 그린 스피드가 4.2m 인데, 당시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빨라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를 4.0m 이하로 낮췄다고 한다. 골프장 관계자는 “박인비 선수도 라테나의 그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보기 위해 수많은 갤러리가 방문했다.

린에는 엄지를 치켜세웠다”며 “평소 주말 골퍼들을 위해 3m대 초반으로 스피드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래도 다들 어렵다고 한다”고 웃었다. 앞선 홀에서 ‘미친 스피드’를 경험해 다른 골프장의 절반 힘으로 스트로크했다. 홀 1m 앞에 멈춘 공을 넣지 못했다. 투 퍼트.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홀에서 보기를 했으니 만족스러웠다. 노련한 캐디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덕분이였다. 코스를 꿰뚫고 있는 베테랑 캐디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라테나GC의 강점 중 하나다. 캐디 관리에 힘써온 덕에 이직률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



Information

규모 27홀 9,368m(1만244yd)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칠전동길 72

그린 피 정회원 - 주중 8만원, 주말 9만원

가족 회원 - 주중 11만원, 주말 18만9,000원

비회원 - 주중 22만원, 주말 27만원

문의 033-260-1114

홈페이지 www.ladena.co.kr



백스윙이 작으면 비거리도 작다!

비거리는 골프 스윙에서의 회전 반경과 스피드의 곱이다. 즉 같은 스피드로 클럽을 휘둘러도 더 큰 회전 반경, 더 큰 궤도를 가진 스윙이 더 큰 비거리를 만든다.

Writer: 오진동 Photo: 오진동, 프리픽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 하는 골퍼는 많지만, 정작 그 비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장비를 바꾸거나, 무작정 힘으로만 접근하기도 한다. 하지만 골프 스윙에서는 물리적 공식처럼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공은 멀리 날아가며 비거리가 늘어난다. 첫째 더 큰 회전, 둘째 더 큰 궤도 스윙아크, Swing Arc, 셋째 더 빠른 헤드 스피드, 그리고 이 모든 시작점은 백스윙의 크기다.

백스윙이 작으면 회전 반경이 작아지고 따라서 클럽 헤드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진다. 그리고 그만큼 가속할 여유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긴 직선 코스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없는 것처럼 스윙도 마찬가지다. 백스윙의 크기는 가속의 공간이고, 힘을 축적해서 쓸 수 있게만 들어준다.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하나같이 백스윙이 크고 유연하다. 단순히 팔만 크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체부터 상체까지의 회전이 깊고, 체중 이동과 밸런스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이다. 결국 비거리를 원한다면 백스윙에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말 골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백스윙 크기가 아무래도 유연성과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백스윙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셀프 체크한 후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백스윙 유연성 체크 및 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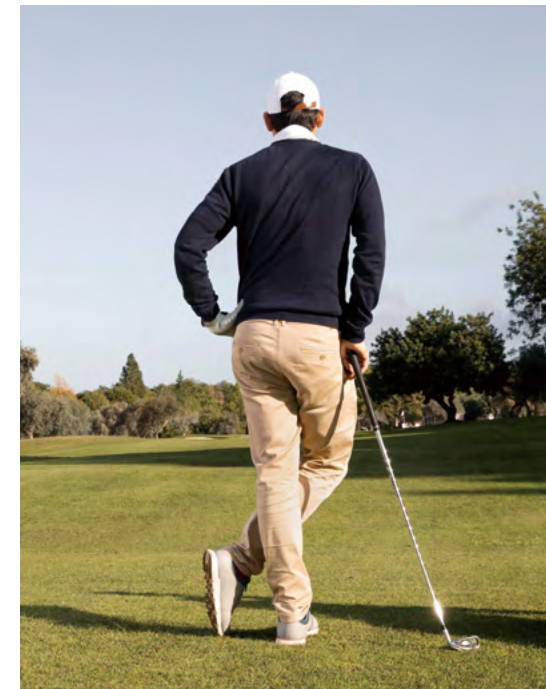
백스윙을 크게 늘리기 위해 유연성을 체크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어깨 외회전 반경, 그리고 또 한 곳은 상체 회전 범위다.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 유연하게 작동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각각 두 부분의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백스윙 동작을 연습한다면 몸에 무리가 적게 가면서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1 어깨 외회전 External Shoulder Rotation

어깨 외회전은 말 그대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과 팔꿈치를 뒤로 젖히는 움직임이다. 투수나 배드민턴 선수들이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깨 외회전이 가능해지면 백스윙 톱에서 클럽을 더 높고 깊게 보낼 수 있다. 이는 곧 스윙 아크를 키워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스윙 아크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클럽이 더 긴 궤적을 돌며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클럽 헤드 스피드와 임팩트 시 전달되는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비거리 향상으로 이어진다.

Check Point

벽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림과 같이 외회전을 만들어본다. 90도 이상 외회전을 만들어야 장타를 치는 데 유리하다. 만일 이 동작에서 90도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 한다.



Training Solution

1.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 쪽을 잡고 위에서 등 뒤로 넘긴다.
2. 왼손으로는 아래쪽에서 클럽 샤프트를 잡는다.
3. 왼손으로 클럽을 아래쪽으로 살짝 당기며 오른쪽 어깨가 외회전되도록 만들고 10~2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매일 10~15회씩 3세트 실시하도록 한다.



Part 2 상체 회전 Upper Body Rotation

프로 선수의 경우 백스윙 시 어깨가 90도 이상 회전하며, 하체는 비교적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척추 각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골반의 회전은 최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등 전체가 뒤로 돌면서 강한 꼬임이 형성되고, 이 꼬임이 임팩트 순간에 강하게 풀리면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Check Point

사진과 같이 클럽을 어깨에 걸치고 앉아서 하체를 고정한 상태로 회전을 시도해본다. 어깨가 정면을 기준으로 양쪽 모두 45~60도까지 회전하면 좋다. 만약 회전되는 범위가 부족하다면 충분한 회전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Training Solution

1. 체크할 때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하체를 고정한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최대한 끝까지 회전한 후 5초간 유지한다.
2. 천천히 정면 쪽으로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회전했다 돌아온다.
3.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10~15회씩 3세트 정도 실시하며 유연성을 늘려간다.

올바른 백스윙 회전 연습법

지금까지 유연성을 체크하고 스트레칭했다면 이제 고무 밴드를 활용해 저항을 이용한 회전 방법을 습득해보자. 고무 밴드의 저항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실제 스윙 시 자신도 모르게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백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왼발로 고무 밴드 한쪽을 밟아 고정한다. 다른 한쪽은 양손으로 그립을 잡듯이 잡고 어드레스 동작 자세를 취해본다. 백스윙 시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킨다. 이때 밴드의 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길게 당겨주며 회전하도록 한다. 양손이 최대한 오른쪽 어깨 뒤에 위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백스윙을 만든 후 3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다. 그 후 천천히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온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후 다시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오기까지를 1회로 잡고 총 10회씩 3세트 진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루틴에 포함시켜 라운드 전 연습 시 워밍업으로 습관화하면 좋다. ●

요약 Point

1. 큰 백스윙을 위한 유연성 만들기(어깨 외회전 및 상체 회전)
2. 밴드를 이용해 올바른 백스윙 회전 습득하기
3. 라운드 전 연습 때 워밍업으로 루틴 만들기



바른 타격 자세

잘못된 타격 자세



1



3



4



2



5

새로운 미식의 별이 뜨다!

2025년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세계적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5〉(이하 〈미쉐린 가이드 2025〉)를 발간했다.
‘밍글스’가 국내 유일의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고, 9개 레스토랑이 2스타,
서울 27개 및 부산 3개 레스토랑이 1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새롭게 미식의 별로 떠오른 레스토랑 세 곳을 소개한다.

Writer: 황태희 Photo: 각 레스토랑

에빗

2019년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이후 변
함없이 뛰어난 요리를 선보이며 5년 연속 1스
타를 지켜온 ‘에빗^{EVETT}’이 올해 처음 2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미쉐린 가이드 2025〉에서
유일하게 2스타로 승급한 에빗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우리에게 친숙한 호
주 출신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이끄는 파인다
이닝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팀원과 한국 전통 식재료
에 세계의 다양한 요리 기법을 접목해 외국인
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에빗의 메뉴는 어느 하
나 평범한 것이 없다. 손수 채집한 개미를 올
려 산미를 더한 식혜 소르베, 꽃을 발효해 만
든 약주는 물론 직접 빻은 메주를 플레이트로

활용하는 등 모든 메뉴에서 식재료에 대한 탐
구 정신과 창의력이 엿보인다. 특히 조셉 리
저우드 셰프가 계절감에 누구보다 진심인 만
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에빗의 매력. 여기에 전문 소
믈리에가 선사하는 전통주와 와인 페어링은
에빗에서의 식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다. 예약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0-5 1층

☎ 0507-1399-1029

✉ reservation@restaurantevett.com



- 1,3_ 우리 쌀로 지은 밥과 한우 스테이크
- 2_ 밝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에빗 레스토랑 내부
- 4_ 직접 빻은 메주 위에 올린 메주도넛
- 5_ 에빗에서의 '마지막 한 입'은 쌀 포장지로 감싼 캐러멜



에스콘디도

2024년까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멕시코 음식 레스토랑은 전 세계적으로 2스타 2곳, 1스타 13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현지의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올해 아시아 최초로 멕시코 음식 카테고리에서 별을 획득한 레스토랑이 깜짝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흑백요리사> 속 '코리안 타코킹' 진우범 셰프가 이끄는 국내 최초 멕시코 파인다이닝 '에스콘디도 Escondido'다.

미쉐린 셀렉션 첫 등장과 함께 1스타를 거머쥔 에스콘디도에서는 멕시코와 국내산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에 최상급 제철 식재료를 결합한 우니 인플라다, 와규 타코 등 독창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코스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멕시코 전통 주류인 메즈칼과 테킬라, 칵테일 등을 곁들이면 더욱 깊고 풍부한 멕시코 퀴진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류 페어

링도 놓치지 말 것! 예약은 네이버 예약과 캐치테이블 앱으로 하면 된다. ●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61-7 지하 1층
☎ 02-2038-8994

1_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아구아 칠레 요리
2_ 에스콘디도는 모든 좌석이 바 테이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미쉐린 가이드>에 첫 등장한 1스타 레스토랑 7곳

상호명	요리	주소	문의
기가스	지중해식	서울시 중구 퇴계로6가길 30 3층	02-3448-9929
뛰뚜아멍	프렌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11길 20	02-499-9056
레굴	비건, 베지테리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 신사스퀘어 2층	0507-1365-1567
소수현	스시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21길 8	010-9694-3368
에스콘디도	멕시코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61-7 지하 1층	02-2038-8994
유유안	중식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7 포시즌스 호텔 11층	02-6388-5500
이스트	컨템퍼러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6-6 3층	070-8855-0470

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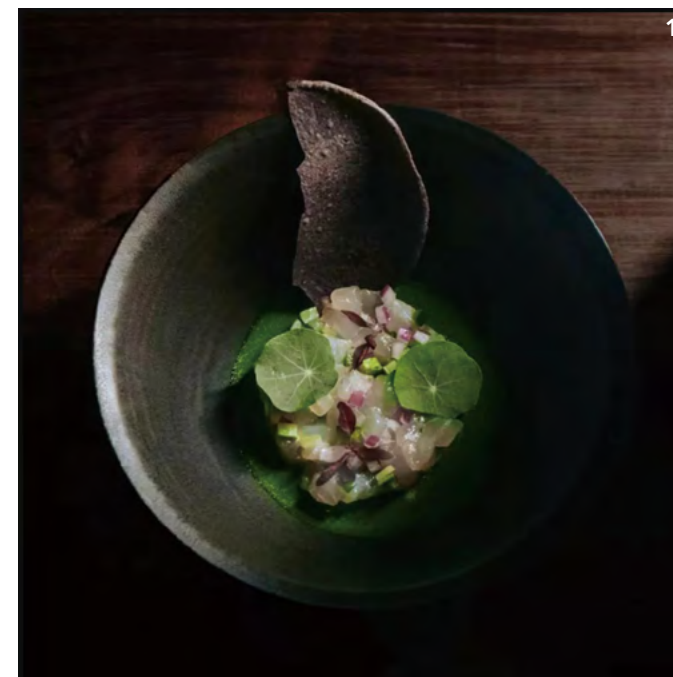
동양권 음식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해 미식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스트 Yeast'가 <미쉐린 가이드 2025>에서 첫 별을 달았다. 이스트는 한식뿐 아니라, 다채로운 아시안 터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아시안 컨템퍼러리 파인다이닝이다.

이스트의 수장인 조영동 셰프는 흔히 볼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맛을 표현하거나,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의 이러한 특

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스트의 시그니처 메뉴인 갈비스톤. 갈비점을 넣어 돌멩이 모양 도넛으로 만든 후 진짜 돌멩이와 함께 바구니에 담아내는데, 이스트만의 흥미로운 접근 방식에 돌멩이를 손에 쥐어 든 이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절로 번진다고. 이스트가 선보이는 특별하고 즐거운 미식 세계를 경험해보자. 이스트의 파인다이닝은 캐치테이블 앱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다.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6-6 3층
☎ 070-8855-0470

1_ 아몬드 두부로 만든 이스트의 대표 메뉴 Tofu
2_ 블랙&그레이로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이스트 내부
3_ 해초 튀레를 곁들인 요리 South Sea
4_ 즐거운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Galbistone



누구나 완성하는 레스토랑의 맛

Fish, Fast, Fantastic!

그동안 생선을 한식 메뉴로만 먹었다면 다양한 소스와 가니시를 곁들여 보다 근사하게 즐겨보자.
단독으로 또는 코스 요리 중 하나로 먹어도 손색없을 메뉴를 엄선했다.

Editor: 지인 Cooperation.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박준우 지음, 더테이블)



[콩치 파르망티에]

파르망티에는 원래 소고기가 들어가는 요리지만, 요즘 으갠 감자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린 요리를 파르망티에라 부른다. 흔한 식재료인 콩치를 이용해 그럴싸한 요리가 탄생했다.

재료(2인분)

콩치 1마리, 감자 500g, 타임 2~3줄기, 버터 75g, 생크림 50ml, 우유 50ml, 미니코스 1~2장, 소금 1작은술, 고운 소금·올리브 오일·빵가루 적당량
소스 다진 양파 50g, 다진 셀롯 50g, 화이트 와인 150ml, 이탈리아인 파슬리 또는 처빌 줄기 약간, 생선 육수(치킨 스톡, 삼계탕 국물, 또는 물) 100ml, 생크림 100ml, 버터 20g, 식용유·소금·후춧가루·밀가루 약간씩

만들기

- 1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물에 서너 번 행군 뒤 체에 건져 물기를 뺀다.
- 2 ①의 감자는 냄비에 소금을 넣은 차가운 물에서 삶기 시작한다.
- 3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고운 소금을 뿌린 콩치를 굽는다. 이때 타임과 함께 굽는다.
- 4 생선 속살까지 완전히 단단하게 구워지면 마른 형겅이나 키친타월로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살을 발라내 모아둔다. 내장이 붙어 있는 부분은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쓰지 않는다.
- 5 ②의 감자는 물을 버리고 냄비에 버터를 넣어 잘 으갠다. 버터가 녹으면 생크림과 우유를 넣어 휘저어준다. 케이크 형태로 쌓아 올려야 하므로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하고, 취향에 따라 너트메그를 추가해도 된다.

- 6 팬에 버터를 두르고 빵가루를 넣어 누릇한 색이 나도록 볶아 체나 기름종이, 키친타월 등으로 기름기를 제거한다. 겉들일 미니코스도 손질해 버터에 굽는다.
- 7 접시에 10~12cm 정도의 물드를 두고 으갠 감자를 2cm 높이로 담는다. 그 위에 콩치살을 넉넉히 올리고 다시 으갠 감자를 덮는다. 그 상태에서 볶은 빵가루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려 덮고 물드를 제거한다.
- 8 모양이 잡힌 파르망티에 주변에 만들어둔 소스를 뿌리고 구운 미니코스를 올려 완성한다.



Sauce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셀롯을 넣고 볶다가 남겨둔 콩치살과 뼈, 이탈리아인 파슬리나 처빌 줄기를 약간 넣고 다시 5분 정도 볶는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더해 끓인다. 와인 양이 3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면 생선 육수 또는 그를 대체할 국물을 더하고 다시 총량이 3분의 1 정도 되도록 졸인다. 졸아든 내용물에 분량의 생크림을 넣고 끓인 뒤 체에 걸러 건더기를 제거한다. 새로 옮겨 담은 냄비에 버터 20g을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버터가 잘 녹고 세게 한소끔 끓으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해 마무리한다. 만약 너무 묽은 질감이라면 소량의 밀가루를 섞어 농도를 맞춘다.



연어 스테이크와 렌틸콩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 연어만큼 만만한 생선 스테이크도 없다. 이번엔 렌틸콩 푸레를 곁들여 건강에도 좋은 특별한 비주얼로 즐겨보자.

재료(2인분)

연어(스테이크용) 250g, 렌틸콩 120g, 타임 3줄기, 마늘 1쪽(껍질째), 버터 1큰술, 치킨 스톱·생크림 적당량, 올리브 오일·소금·후춧가루·식용유 약간씩
가니시 이탈리아 파슬리 8g, 셀롯 30g, 당근 25g, 시판 훈제 연어 30g, 올리브 오일 약간

만들기

- 1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렌틸콩, 타임,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약 14분간 삶는다.
- 2 마늘과 타임은 건져내고 삶은 렌틸콩 중 5분의 2는 가시니용으로 따로 둔다.
- 3 남은 렌틸콩이 잠길 만큼 치킨 스톱을 부어 푹 끓인 후 콩이 완전히 익으면 블렌더로 간다. 이때 물기가 부족하다면 치킨 스톱이나 생크림을 조금씩 부어도 된다.
- 4 간 렌틸콩 푸레는 체에 내려 갈리지 않은 콩껍질을 제거하고, 온도가 너무 식기 전에 버터를 넣고 잘 풀어준다. 버터가 녹으면 생크림으로 원하는 농도를 맞추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 다음 냄비에 담아 데운다.
- 5 연어는 앞면과 뒷면에 소금과 후춧가루,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바르고 타임을 넣어 매리네이트한다.
- 6 연어를 매리네이트하는 동안 ②의 남겨둔 렌틸콩은 체에 걸러 물기를 뺀다.
- 7 연어 스테이크에 맞는 크기의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껍질 면부터 굽는다.
- 8 껍질이 바삭하게 익어가고 연어살이 80% 정도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1분 정도 더 굽고 불을 끈 후 잔열로 익혀준다.
- 9 접시에 데운 렌틸콩 푸레를 깔고 그 위에 가니시 재료를 담는다. 마지막으로 구운 연어 스테이크를 올린다.



Garnish

이탈리언 파슬리는 잘게 다지고 셀롯과 당근, 시판 훈제 연어는 렌틸콩 크기로 깍둑썰기한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데운 후 당근을 넣어 볶는다. 그런 다음 셀롯과 삶아서 빼 둔 렌틸콩을 넣고 볶은 후 불을 끄고, 재료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썰 어둔 훈제 연어와 이탈리아 파슬리를 넣고 버무린다.

참치 타르타르

메인보다는 아미즈부수용으로 잘 어울린다. 샐러드 대용으로도 가능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먹기 직전에 드레싱과 섞어서 내는 것이 포인트다.

재료(2인분)

참치(횡감용) 350g, 오이 15g, 양파 10g, 적양파 10g, 쪽파 15g, 셀롯 15g, 레몬 & 라임즙·식초·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드레싱 레몬즙 10g, 라임즙 10g, 올리브 오일 25g 디종 머스터드 5g, 처빌 5g, 차이브 15g, 세리 비니거·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들기

- 1 오이, 양파, 적양파, 쪽파, 셀롯은 아주 잘게 다진다. 양파와 셀롯 등은 매운맛이 있다면 얼음물에 담가두고,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불이나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 2 드레싱 재료 중 레몬즙, 라임즙, 올리브 오일, 디종 머스터드는 거품기로 잘 섞고 체빌과 차이브는 잘게 다져 섞는다. 소금과 후춧가루, 세리 비니거를 넣어 간을 맞춘다.
- 3 횡감용 참치는 슬라이스하고 채 썬 후 다시 잘라 주사위 모양으로 만든다.
- 4 잘라둔 채소와 참치를 볼에 담아 잘 섞어주고, 어느 정도 섞였다면 드레싱을 조금씩 넣어가며 타르타르가 너무 흥건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며 버무린다.
- 5 모든 재료가 적당히 섞였다면 간을 보고 취향에 맞춰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린 후 레몬과 라임즙, 식초를 넣어 산미를 더한다.
- 6 완성한 타르타르를 접시나 볼에 담아 빵에 곁들여 먹는다. 🍴



드레싱은 먹기 직전에 버무리는 것이 좋다. 드레싱을 부려 장시간 두면 염분과 산에 의해 참치 단면이 익어 탁한 색을 띠게 된다.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은

글 쓰는 요리사 박준우 셰프의 첫 번째 요리 에세이자 레시피 & 와인 페어링 북이다. 계절별로 나눈 36가지 이야기와 함께 그만의 레시피가 담겨 있다.



이제, 명상이 처방된다

명상이 단순한 힐링을 넘어 치료 과정의 일부로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고, 고통을 조절하는 뇌의 회복력을 키우는 시간. 그 조용한 수련이 삶의 회복을 이끄는 실마리가 된다.

Editor. 강은진 *Photo.* 프리픽
Reference. <병원 명상>(김종우·곽희용 지음, 답앤박스)

명상 치료가 주목받는 이유

“휴가나 연휴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속도를 늦추고 매일 잠깐의 시간을 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웰빙,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계 만족도 및 집중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음 챙김 수련은 스트레스와 불안,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통합의학 부서에 서 암 환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명상 워크숍을 진행하며 남긴 안내 문구다. 단순한 힐링을 넘어 암 치료 과정의 일부로 명상을 정식 도입한 사례다. 현재 미국 주요 암센터 45곳이 명상과 요가를 통합의학의 일부로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명상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웰빙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감정 기복이나 부정적 감정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치유의 전환점, 마음까지 복약 지도

현재 미국의 주요 암센터 45곳이 명상과 요가를 보완 대체 의학의 하나로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동경희대병원이 2007년부터 8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등 치료적 적용을 본격화했다. 명상은 더 이상 병원 밖의 활동이 아니다. 병원 진료실 안에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명상을 ‘처방’하고 있다. 명상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 단순한 심신의 안정이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과 통증 인지를 줄이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명상이 뇌과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설명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료적 신뢰를 높이는 요소다. 뇌의 전전두엽이 강화되고 편도체 반응이 조절되며,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화된다는 것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대표적으로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은 만성 통증, 불안 장애, 암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활용되며 미국과 유럽 병원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명상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율하고, 고통을 있

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환자에게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부여한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암 환자들은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고, 항암 치료 중 겪는 불면이나 무기력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한다.

회복의 실마리

명상이 특히 효과를 보이는 환자군은 다양하다. 암 진단 이후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 암 치료를 극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생존자, 은퇴 후 우울감에 빠진 노년층, 반복되는 무기력과 식욕 저하로 일상이 무너진 우울증 환자, 짜증과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화병 환자, 우울증이 동반된 만성 고혈압 환자, 교통사고 후 신체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환자, 매일 두통에 시달리는 만성 두통 환자, 수술을 앞두고 불안이 극심한 만성 관절 통증 환자 등이다. 이들에게 명상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대안이 된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시작되는 그 조용한 한 걸음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 E A L T 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해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정예 핵심 PB 라인업의 전략적 시너지 TWO CHAIRS W 도곡

가업승계, 글로벌 자산 배분,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정밀한 컨설팅.
고도화된 원스톱 프라이빗 금융 솔루션이 집약된, 대치와 도곡을 아우르는 초대형 특화센터.
바로 TWO CHAIRS W 도곡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박충렬



자연스러운 우드 톤이 돋보이는 TCW도곡 상담실



1명의 고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TCW도곡의 상담실 전경



자산가 니즈 읽는 선제적 컨설팅

강남권 부의 중심 도곡동에 자리한 TWO CHAIRS W 도곡(이하 TCW도곡)은 단순한 이전이 아닌 확장과 진화를 상징한다. 2024년 10월, 기존 TCW대치가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으로 이전하며 문을 연 이 센터는 대치동과 도곡동이라는 자산가 밀집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우리은행 PB 영업의 전략 거점이다. 특히 규모 면에서 TWO CHAIRS 특화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크며,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서비스의 깊이'까지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부장을 포함해 총 9명의 PB지점장·팀장급 인력이 상주하며 부동산, 세무, 상속, 증여, 해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자산 승계 시뮬레이션, 복잡한 세제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 프라이빗 금융 솔루션'이 TCW도곡의 핵심이다. 특히 세무 및 부동산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상주해 실시간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절감 등 고액 자산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 리포트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TCW도곡은 특화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TCW센트럴시티 영업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위치한 이 영업소는 지난 4월 7일 문을 열었으며, 신세계 VVIP 및 JW 메리어트 마르퀴스 회원을 위한 자산관리 특화센터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TCW도곡 PB지점장과 팀장. 이정미 본부장은 '최정예 군단'이라 표현했다.

로 운영 중이다. 특정 VIP 고객군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PB 서비스라는 점에서 TCW도곡은 브랜드의 확장성과 실험적 기획을 이끄는 선도 센터로서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예술과 금융이 만나는 프라이빗 공간

고객 구성도 눈에 띈다. 도곡동·대치동 일대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 고액 부동산 임대소득자, 국내외 대기업의 퇴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고객은 자산의 안정성과 효율적 이전을 동시에 고민하는 중장년 고액 자산가층이다. TCW도곡은 이들 고객의 라이프사이클과 니즈를 기반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세대 간 자산 이전 시뮬레이션, 국내외 부동산투자 및 절세 전략,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결합한 '원스톱

프라이빗 금융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감각적 경험까지 아우르는 공간 설계로도 주목받는다. 일대일 맞춤 상담이 가능한 8개의 독립형 상담실은 모두 방음 설비와 고급 인테리어를 갖췄으며, 벽면에는 최영욱·미미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원화가 걸려 있어 금융 상담과 문화 감상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라운지는 프랑스 드비저리 de Bejarry의 오더메이드 가구로 꾸몄으며, 차분한 음악과 함께 제공하는 바리스타의 맞춤형 커피 서비스는 '은행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최하는 아트 세미나와 마티네 콘서트, 투자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자산가 고객의 감정적 니즈까지 고려해 세밀하게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지난 분기에는 예술품 투자와 세무 전략을 접목한 강의가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미술계 라이징 스타와의 교류 프로그램 역



기업 오너의 프라이빗한 상담이 가능한 TCW도곡 상담실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TCW도곡의 라운지 전경

시 자산가 고객의 적극적 호응을 끌어냈다.

신택으로 완성되는 자산관리의 품격

무엇보다 TCW도곡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 중심'의 밀착형 서비스에서 비롯된다. 이곳의 PB들은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고객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자처한다. 재외동포의 국내 자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고객 대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 수년간 복잡한 해외 반입 신고 절차를 지원한 사례는 단적인 예다. 또 위조 신분증 계좌 개설을 사전에 탐지하고, 본점 유관 부서와 협업해 밤 11시 30분에 은행으로 복귀해 수개월간의 맞춤형 전산 개발까지 주도한 사례도 있다.

감동적인 사례 또한 많다. 오랜 기간 기러기아빠로 지내며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고객을 위해 자녀와

TWO CHAIRS W 센트럴시티 영업소

2025년 4월 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문을 연 TCW 센트럴시티 영업소는 트리니티·블랙다이아몬드·JW 메리어트 피트니스 회원 등 초고액 자산가 고객군을 위한 100% 예약제 프라이빗 센터다. TCW도곡 PB지점장이 직접 상주하며 TCW도곡과 동일한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 백화점과 호텔 VIP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아버지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가족 액자를 선물한 이야기는 이곳 PB의 업무가 숫자를 넘어 '사람'에 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인생 곁에서 함께 걸으며 필요한 순간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TCW도곡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금융 공간'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TWO CHAIRS W 도곡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전화 02-501-1639

special interview

“고객 생애 아우르는 동반자적 서비스, 큰 자부심”

TWO CHAIRS W 도곡 이정미 본부장

TCW도곡을 맡은 소감과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TCW도곡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표 PB들과 차세대 인재들이 함께하는 ‘어벤저스 군단’을 이끌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PB지점장들과 차세대 PB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센터가 되는 것, 고객님에게는 ‘가족과 지인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PB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TCW도곡을 맡으며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나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며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객님의 자산 증대 및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이 평가하는 TWO CHAIRS W의 강점이 궁금합니다.

TWO CHAIRS W는 자산 포트폴리오와 절세 전략,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자산 승계, 부동산투자 및 활용 전략까지 부동산·세무·자산관리 컨설팅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원스톱 프라이빗 बैं킹 시스템이죠. TWO CHAIRS W에는 10년 이상 장기 거래한 고객이 대부분이고 부모에 이어 자녀도 거래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는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인생 여정의 고민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고객 맞춤형 토털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TWO CHAIRS W는 앞으로도 고객의 새로운 니즈에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PB센터로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

TWO CHAIRS W 도곡
SPECIAL PB PROFILE

이정미 본부장

- 인재개발부 마케팅 교수
- 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 도곡렉슬지점 지점장
- 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 고객센터 본부장
- 성북동대문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CFP(국제재무설계사)



김희준 PB지점장

- PB/FA 경력 11년
- PB/FA 명장 및 우수 직원 수상 7회
- 압구정/논현역/법조타운지점 대표 PB
- 삼성동금융센터/TC프리미엄대치센터 지점장
- 은퇴 설계 전문가 수료



김유선 PB지점장

- PB/FA 경력 20년
- 강남교보타워/서초/TCE강남센터 대표 PB
- 자산관리그룹 방카슈랑스/비대면펀드 팀장
- 조선일보 재테크박람회, 우리은행 유튜브 강연
- 연세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 CFP(국제재무설계사)



장미란 PB지점장

- PB/FA 경력 13년
- PB/FA 우수 직원 수상 12회
- TCE본점/본점영업부/남역삼동 대표 PB
- 제휴상품부(펀드)
- 인재개발부(CS)
- 2022 우수 FP 대외 수상
- CFP(국제재무설계사)/CBCO



성현숙 PB지점장

- PB/FA 경력 11년
- PB/FA 우수 직원 수상 10회
- 올림픽/도산대로/논현동지점 대표 PB
- AFPK(재무설계사)/은퇴 설계 전문가 MASTER



김아름 PB팀장

- PB/FA 경력 5년
- PB/FA 우수 직원 수상 8회
- CFP(국제재무설계사)



오정주 PB지점장

- PB/FA 경력 20년
- PB/FA 명장 및 우수 직원 수상 13회
- TCE강남센터 대표 PB
- 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발전 유공 표창 수여
-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재테크 칼럼 다수 기고



김수정 PB지점장

- PB/FA 경력 12년
- PB/FA 명장 및 우수 직원 수상 16회
- 연세/한남동금융센터 대표 PB
- 팍스경제TV 뉴스 인터뷰
- 연세대학교 금융공학 석사과정 재학 중
- AFPK(재무설계사), 은퇴 설계 전문가 MASTER



지영주 PB지점장

- PB/FA 경력 14년
- PB/FA 우수 직원 선정 및 은행장 표창 수상
- TCE강남/코엑스/논현중앙/압구정동/삼성타운금융센터 대표 PB
- 매일경제 재테크 칼럼 다수 기고
- CFP(국제재무설계사)



박신영 PB팀장

- 우리은행 PB FAST TRACK 1기
- IPA(Investment Product Advisor) 3기
- CFP(국제재무설계사)



마라라고 합의 Mar-a-Lago Accord는 실현될 수 있을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까지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벗어나는 관세정책이 얼마만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Writer: 최진호(우리은행 WM솔루션부 Economist) Photo: 프리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피로감 극심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피로도가 극심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상호 관세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블랙 먼데이(4월 7일)를 발생시켰고, 며칠 만에 90일 유예 선언을 하면서 다시 글로벌 주가지수는 불기둥을 내뿜는 희귀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트럼프가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관세 부과 후 이를 유예해주며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패턴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관세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에도 좋을 수가 없다.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정책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라는 미국인들의 저항에도 트럼프가 이처럼 공격적 관세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교역의 부산물로 취급

표면적으로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로 세 가지 정도를 주장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불공정한 관세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불공정한(?) 거래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더러운 dirty 국가들'이라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정말 불공정한 관세 때문일까? 거시경제적으로 대외수지(≡무역수지)라는 항목은 국민소득항등식에서 총저축과 총투자(≡총지출)의 차이로 정의된다. 즉,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가계, 기업, 정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얻

“

한 국가의 대외수지가 적자 또는 흑자라는 현상은 '좋다', '나쁘다'라는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대외수지가 과도하게 적자 또는 흑자를 보이면 금리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책임성을 띠는 사람들(대통령, 정치인, 중앙은행 등)의 심기가 불편할 수는 있다.

”

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경제적 행위가 진행된 후 남겨진 것들의 총합이 대외수지라는 의미다. 따라서 국가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대외수지가 적자(총지출>총저축)라는 것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적자 경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며, 한 국가의 대외수지가 적자 또는 흑자라는 현상은 '좋다', '나쁘다'라는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대외수지가 과도하게 적자 또는 흑자를 보이면 금리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책임성을 띠는 사람들(대통령, 정치인, 중앙은행 등)의 심기가 불편할 수는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바꾸겠다고 관세를 통해 역지를 부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려 해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약달리는 양립하기 힘든 목표

국가경제에서 수입이 늘어 대외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절하되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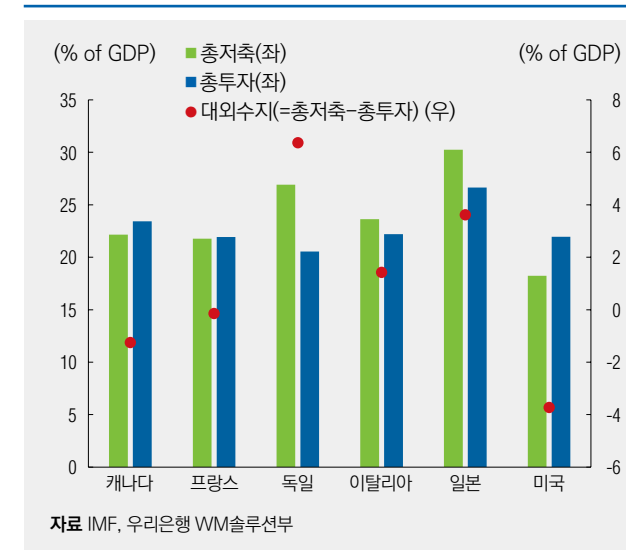
을 자극해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중심의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힘을 빌려 대외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러와 낮은 금리(코로나19 이전까지)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에서 예외로 적용받는, 기축통화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미국이 누려온 특권은 무시한 채 강한 달러가 더러운(?) 국가들에 무역흑자를 안겨주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주장과, 그래서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약달러와 저금리를 유도하겠다는 논리는 역지에 가까워 보인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론적으로 관세를 통해 미국의 대외수지가 흑자로 반전된다면, 그때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목표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이 달러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유도하겠다는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가 점점 힘을 받는 배경이다.

마러라고 합의는 결국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마러라고 합의는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1) 인위적인 달러가치의 절하를 이끌어내 미국의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2) 늘어난 재원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3)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가지 목표부터 의심스럽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탄생한 ‘미국의 달러 절하’와 ‘일본의 엔화 절상’이라는 결과물이 일본을 버블경제로 몰아넣고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다는 폐해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선뜻 나서 인위적 달러 약세를 받아주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럼에도 미국에 충성도가 매우 높은 가상의 어느 국가가 나서서 자국 통화를 절상하고 달러 절하에 합의했다고 가정해보자. 달러가 절하됐으

니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겠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은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의 투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축통화국이 스스로 가치를 낮추겠다는데, 가치가 하락하는 기축통화를 계속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렴한 기축통화’라는 단어 자체가 역설적이다. 이런 역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다시 정치적 힘을 빌려오고 있다. 바로 미국이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우방국들에 초장기물(100년) 미국 국채를 사실상 강매하겠다는 것이다. 영구채에 가까운 100년물 국채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발행하고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를 매수해가면,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투매를 방지할 수 있고 우방국들은 자국 통화가 필요 이상으로 절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마러라고 합의에 참여한 국가는 그 폐해(1985년 플라자합의로 탄생했던 엔고^고의 폐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당근책임에도 100년물 초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리스크(채권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총저축과 총투자, 대외수지 (IMF, 2025년도 전망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거시경제학에서 대외수지는 총저축과 총투자(총지출)의 차이로 정의된다. 미국의 대외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미국의 낮은 총저축률이 핵심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너무 많은 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관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이 대외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자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조절하고 정책재원을 확충해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에 투입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이 정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경제적 비용(소비 감소와 경기둔화)이 들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정석 대신 관세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비용을 무역 상대방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관세가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더욱 짙어질 수 있다. 과거 일반적인 경기침체에서 구원투수는 연준 Fed Put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의 선택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상충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임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

※ 본고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행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Economist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잠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번복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까지 겹쳐 향후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Writer: 김능수(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건설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한경DB



드디어 5년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절차를 밟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및 가격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후 서울시는 규제 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며 지난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당시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삼성·청담·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65.25㎢ 규모였다. 이 곳들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인근 4개 동(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총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규제를 유지하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였다.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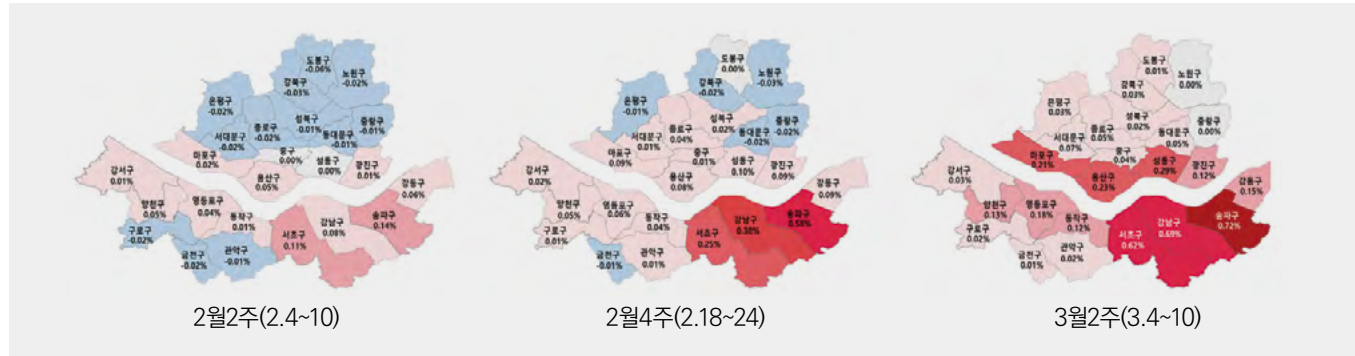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해제하고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급등하는 분위기에 맞서 다시 규제정책을 꺼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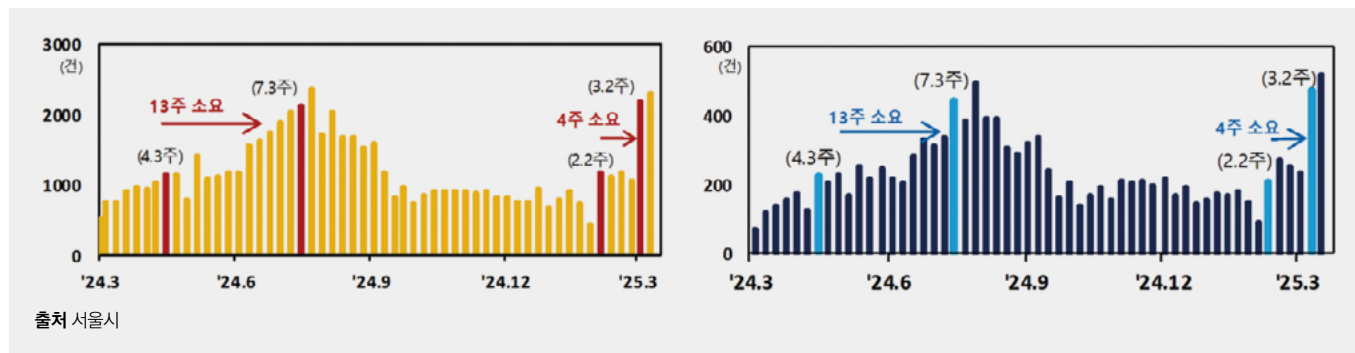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아지다 2월 말부터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주간 거래량 또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주 만에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할 만큼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런 현상은 과거 주택시장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가격 상승폭, 주변 자치구로의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었고, 거래자 특성을 보더라도 강남3구 등 상급지구의 수요 유입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와 금융시장 부실, 물가상승 등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3.0→2.75%로 0.25%p 인하했다. 그 이유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인데, 주택 구입자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이렇듯 예상 밖의 가격 상승 및 확산세에 놀란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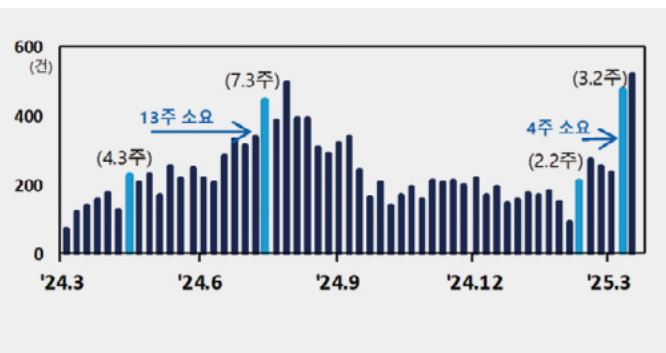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부동산원 동향조사)



서울 전체 주간 매매거래량(APT)



강남3구 주간 매매거래량(APT)



일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강남3구 및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 총 110.65㎢)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현 강남·서초·송파·용산) ③ 최근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점 강화,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 일정을 5월로 조기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 한층 강화 등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④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실시, 그리고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에 통보하고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 수시 조사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⑤ 연말까지 신축 매입 약정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 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22조원 규모 매입 확약(2.5만 호 기확약) 등 공급 조기화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상승폭 축소

이처럼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둘째, 매수자는 토지 취득일(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래절벽’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출처 서울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계획했던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반면, 아파트 매수에 관심을 갖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셋째, 수년 전부터 ‘쏟아놓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특성상 규제 지역을 피해 인접한 지역으로 거래가 몰리며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서울시가 단기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격상승이 크지 않았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정책 추진 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자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고심을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규제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3월 24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강남3구 및 용산구 일대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매물이 줄고 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외 경기 침체현상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정부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점 강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등을 감안하면 규제지역의 매매 시장은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 부족현상 및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산지역의 대규모 재개발계획과 강남권의 학군 수요, 일자리 및 교통 인프라, 강력한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라면 조정 국면을 기회로 삼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규제 완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단,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때는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등

김능수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상장주식 대주주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달 중 하나다. 해외 및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2024년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Writer: 김혜리(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인할 것!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체크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와 소액주주의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구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	○	○	○
소액주주	×	○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보유 주식에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주식과세금, 국세청 2024, p43)

구 분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2024년 1월 1일 이후	1%	50억원	2%	50억원	4%	50억원

신고 대상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임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시가총액 기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지분율 기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과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한 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인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해외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시 세금 발생 가능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증권시장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아서 실현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해외 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

보유 단계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현지 배당세율(예: 미국 15%, 중국 10%, 싱가포르 0%)로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후 한국에서 14%와 현지 세율 차이분 원천징수
처분 단계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에 투자한 한국 거주자의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 대상(250만원 공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범위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세법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과세 대상을 해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계산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입에 소요된 취득원가와 부대 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각 결제일의 환율에 따른 환차손익까지 세금에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면 신고와 납부 기한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즉,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 기한	(예시)양도일 '24. 7.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 기한: '25. 2. 28.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 기한: '24. 9. 30.
해외 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 (예정신고 제외)	신고 기한: '25. 5. 31.

반기, 즉 6개월마다 신고 기간이 있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즉, 해외 주식의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라도 주식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③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라도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10%에서 30%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외화 매도 체결 가격×결제일 기준환율)
-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외화 매수 체결 가격×결제일 기준환율)
- 필요경비	예: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 양도차익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 통산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해외 주식 :20%(해외 상장 중소 내국법인 10%) (국내 주식: 10~30%)
= 산출 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

“ ”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세법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이다.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 세율을 적용한다.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에는 지방소득세 10%를 각각 가산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율
국내 주식 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신고 기한: '24. 9. 30.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신고 기한: '24. 9. 30.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해외 주식 등 **			신고 기한: '25. 5. 31.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별도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팁 4

1. 해외 주식에 이익 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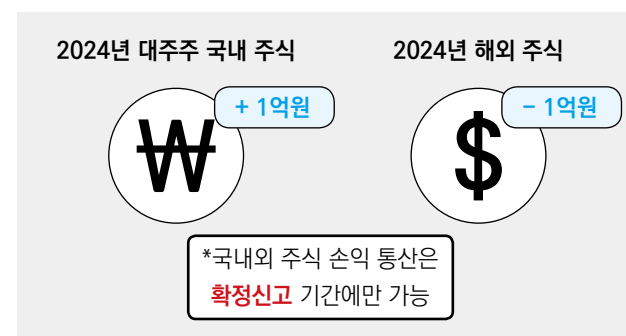
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통산 방법

양도차익은 그해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종목들의 손익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때 ‘손익 통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 미국 주식에서 매도 이익 600만원이 발생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른 종목인 B 미국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익 통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손실과 해외 주식 양도이익은 상계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하고, 해외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이 되었을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주주인 경우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즉,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기간에 통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해야 하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연 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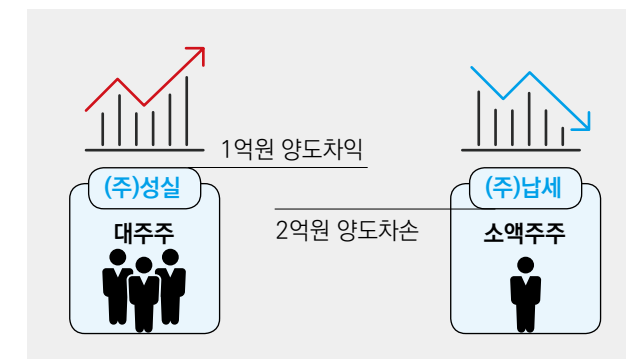


2.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손익 통산 방법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 대주주 종목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장내거래된 소액주주 종목에서 양도차손 2억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주주 종목의 양도차익 1,000만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손실 본 소액주주 종목을 장내에서 매도했다, 대주주 종목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소액주주 종목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종목의 경우 장외거래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양도세 신고 대상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3.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도입되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후 1년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수증자)가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 내에서 실현하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기간에 통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 양도소득세 역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회 양도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를 국세청은 면밀하게 제재하고 있다. 유념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증여자가 회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아 증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미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실질 증여 후 수증자가 매도해야 한다.

4. 작지만 매년 절세할 수 있는 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몇 년 동안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5년 5월 16일(금)~6월 20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2명)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TWO CHAIRS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214)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W 부산



TWO CHAIRS W 압구정



TWO CHAIRS W 여의도

TWO CHAIRS Exclu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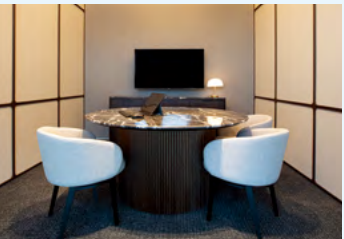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CE강남센터



TCE본점센터



TCE시그니처센터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크 서비스,
해외 유학·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꿀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상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